

통일 기반 사상으로서의 해원상생

-남북 분단의 해소와 한민족 통합을 위한 모색-

楊茂木*

目次

- | | |
|---------------------------------------------------------------------------------------------------------------------------------------------------------------------------------------------------------------------------------------------------------------------------------|--------------------------------------------------------------------------------------------------------------------------------------------------------------------------------------------------------------------------------------------------------------------------------------------|
| <p>I. 연구의 시각</p> <p>1. 연구의 필요성과 제한점</p> <p>2. 분단 상황의 심화 과정과 남북 갈등</p> <p>3. 진정한 통합과 통일을 위한 방법으로서의 해원상생</p> <p>II. 인간의 일반적 욕구와 갈등</p> <p>1. 욕구의 다양성</p> <p>2. 갈등의 다양성</p> <p>3. 욕구와 갈등 관계</p> <p>III. 대순 사상에 나타난 해원상생</p> <p>1. 해원의 양태</p> <p>2. 상생의 양태</p> <p>3. 해원과 상생의 관계</p> | <p>IV. 해원상생과 남북한의 정치 이데올로기</p> <p>1. 분단 반세기의 남북한 이데올로기 비교</p> <p>2. 남북한 사회체제 비교</p> <p>3. 갈등의 해소를 위한 통일 기반 사상의 필요성</p> <p>4. 해원상생을 바탕으로 한 정치적 통일과 사상적 통일</p> <p>V. 해원상생에 의한 남북통일의 모색</p> <p>VI. 갈등 해소와 통합 사상으로서의 해원상생</p> <p>1. 통일 이후 예견되는 갈등 양상</p> <p>2. 해원상생 정치의 실현</p> <p>VII. 결 론</p> |
|---------------------------------------------------------------------------------------------------------------------------------------------------------------------------------------------------------------------------------------------------------------------------------|--------------------------------------------------------------------------------------------------------------------------------------------------------------------------------------------------------------------------------------------------------------------------------------------|

* 정치학 박사 · 한국정치문화연구소 소장

I. 연구의 시각

1. 연구의 필요성과 제한점

「해원상생」은 대순진리에 있어서 음양합덕 신인조화 도통진경과 더불어 4대 종지 중 하나일뿐만 아니라 갈등과 반목, 정복과 약탈, 전쟁과 파멸의 상극(相剋)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을 어떻게 구원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가장 구체적이고 정확한 답을 제시하고 있는 인류 구원의 사상이라 할 수 있다. 해원사상은 다른 종교에서 주장하는 갈등과 집착, 원죄의식 등 1차원적인 인간 인식과는 차원을 달리하는 근본적인 인류 구원 사상이라는 점에서 크게 각광을 받고 있다.

인간의 불행과 고통에 대해 비교적 깊이있는 성찰의 효과를 거둔 종교로 평가받는 불교는 연기연생(緣起緣生)의 원리를 제시하면서 그 고통이 인간의 집착(執着)과 갈애(渴愛)에서 시작됐음을 강조하고 있다. 사막에서 출발한 종교인 기독교는 인간이 고통받는 이유를 “아담과 하와가 여호와의 명을 어기고 에덴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원죄(原罪)를 지었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이 원죄로부터 벗어나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해야 한다고 역설한다.

이들에 비해 해원사상은 추상적 원죄나 연기연생론과 달리 개인, 사회 구성원, 인류 전체가 각자의 내면에 도사린 원통함을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함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프로이트 이후 1세기를 맞은 현대 정신분석학의 결론과도 일치하고 있어 세계적인 관심을 모으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은둔자적(隱遁者的)인 자기 성찰의 소극적 입장이나 맹목적 자기 희생의 사랑만을 강조하지 않고 상대방도 살고 자기 자신도 더불어 살게 되는 상생(相生)의 진리를 제시하고 있다. 상대방의 소유가 2이고 자신의 소유가 4라고 가정할 때 자신의 소유 중 1을 상대방에게 사랑으로 베풀어 주고 나면 서로 3대 3이 되어 비교적 공평한 상태에 이르는 셈이 된다. 하지만 그 합(合)은 여전히 6일 따름이다. 그러나 상생의 경우는 더하기(加)가 아니라 곱하기(乘)의 원리가 적용되기 때문에 그 합은 $2 \times 4 = 8$ 이라는 결론에 이른다. 상생에 의해 둘이 더 불어나고 창조되는 식의 「기적의 역사」가 쌓여 계속되는 것이

상생의 세계이다.

해원상생에 대해 대순진리의 『전경』에서는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

“선천에서는 인간 사물이 모두 상극에 지배되어 세상이 원한이 쌓이고 맺혀 삼계를 채웠으니 천지가 상도(常道)를 잃어 갖가지의 재화가 일어나고 세상은 참혹하게 되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천지의 도수를 청리하고 신명을 조화하여 만고의 원한을 풀고 상생(相生)의 도로 후천의 선경을 세워서 세계의 민생을 건지려 하노라. 무릇 크고 작은 일을 가리지 않고 신도로부터 원을 풀어야 하느니라.” (공사 1장 3절)

또한 증산은 우주가 형성되어 성장하는 과정에서 상극의 창조 원리가 작용함으로써 원한과 갈등이 쌓여 왔음을 적시하고, “선천에는 천지에서 상극의 진리로 인간과 만물을 길러내므로 인간의 모든 일이 도의에 어그러져서 원한이 맺히고 쌓여 있다” 고 밝힌 뒤 “내가 이제 모든 것을 풀어 놓아 각기 인간의 자유행동에 맡기어 먼저 난법시대를 열어 놓는다” 고 첨언하였다.

그런 뒤, 상극의 원리에 지배되어 인류 종말의 위기에까지 빠진 인간을 비롯 모든 삼라만상의 원한을 풀어 생명을 구원하여 “이제 상생의 도로써 천지를 개혁하여 새 세상을 펼리라” 고 강조한다. 이 말씀 그대로 후천개혁의 선경(仙境) 즉 지상천국을 이룰 원리가 이 해원상생에 담겨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다.

「해원(解冤)」에 있어서 ‘원(冤)이란 무엇인가’ 하는 개념 설정도 그렇게 만만치는 않다. 가장 단순한 자의적(字意的) 의미를 살펴 보면 ‘원통함, 억울함, 원한, 원수’ 등의 의미가 있고, 원굴(冤屈: 원통한 죄와 누명을 씌), 원계(冤繫: 죄없이 잡혀 감힘), 원귀(冤鬼: 무고한 죄로 죽은 사람의 망령), 원루(冤淚: 원통하여 흘리는 눈물), 원사(冤死: 억울하게 죽음), 원원상보(冤冤相報: 서로 원한을 보복함), 원혼(冤魂: 원통하게 죽은 사람의 혼령) 등에 널리 쓰이고 있다.

이러한 원의 종류로는 (1) 민족의 원과 개인의 원, 그리고 인류의 원 (2) 조상으로부터 물려 내려져온 원과 자기 당대의 원 (3) 외형적 원과 내면적 원 등이 있을 것이고, 원의 작용 역시 부정적 측면과 더불어 “원풀이를 위

한 적극적 노력” 등 긍정적 작용 역시 없지 않음도 알 수 있다.

해원에 있어서 「해(解)」의 자의적 의미를 살펴봐도 ‘쪼갬, 풀림, 깨우쳐 줌, 벗어남’ 등의 의미가 있고, 해갈(解渴: 목마름을 풀어버림) 해건(解巾: 머리 수건을 벗어버림) 해결(解決: 얽힌 일을 풀어서 처리함) 해금(解禁: 금하던 일을 풀음) 해독(解毒: 독기를 풀어 없애버림) 해득(解得: 깨우쳐 앎) 해민(解憫: 근심을 풀어버림) 등에 널리 쓰이고 있다. 또한 이 해(해)는 타의에 의한 해, 자의에 의한 해, 내면적 해와 외형적 해, 개인적 해와 사회적 민족적 인류적 해 등으로 분류가 가능하다.

민속사상에 나타난 해원을 살펴보면, ‘해원풀이’, 또는 ‘망자(亡者)풀이’라 하여, “죽음이란 허무한 것이며 짧은 삶의 기간 동안 겪은 많은 한을 풀어버리도록” 무가(巫家)에서 진오기굿 씻김굿 등을 행한다. 불교의 ‘회심곡’도 이 계열이다. 한이 많은 영혼은 죽어서도 안주처에 들지 못하고 인간세상을 떠돌게 되므로 산 사람이 해를 받게 된다 하여, 산 사람의 행복을 위해 죽은 영혼의 해원을 해준다는 것이다.

또한 국립중앙도서관 고서목록 고(古)1496호로 분류되어 있는 460년 전의 인물 남사고(南師古: 조선왕조 명종 때의 예언자)가 지었다는 이른바 ‘한민족의 예언서」 「격암유록(格庵遺錄)」에는 해원과 관련하여 이런 글귀가 보인다.

白髮君王白石理
非道覺而無知死
道知人解冤世

(백발의 군왕이니 돌이 흰 이치로다.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면 죽으니,

진리를 따르는 사람은 맺힌 한을 푸는 세상이로다.)

해원 사상이 곧 민족 구원과 인류 구원의 진리임을 이 글에서도 밝힌 셈이다.

이 해원상생 사상에 대해서는 이미 “대순사상과 한국정치 -해원상생 사상을 중심으로-”라는 필자의 글 「대순사상논총」 제1집(경기 포천: 대순사상학술원, 1996)에서 이미 상술한 바 있으므로 여기에서는 이 지구상에 유일

한 분단국가로 남아 있는 한국의 특수한 실정을 감안하여 “남북 분단의 해소와 한민족 통합을 위한 모색”으로서 <통일 기반 사상으로서의 해원상생>에 대해서만 전개하고자 한다. 분단되어 민족상잔의 전쟁까지 치른 우리 한민족이 어떻게 해원을 하고, 또 상생에까지 이르게 할 것인가를 고찰하는 것이 해원상생 사상의 보다 구체적인 미시적 연구가 될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거시적 시각과 미시적 시각은 병존하여 상생하게 해야 될 것이기 때문이다.

2. 분단 상황의 심화 과정과 남북 갈등

지금 우리는 적대와 대결로 치달고 있다. 정치가 그렇고, 경제가 그렇고, 남북관계가 그렇다. 국민들은 무언가 마음을 시원하게 만들어 줄 것을 찾고 있다. 한동안 국민들은 어둡고 답답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 야구 중계를 하는 TV 앞으로, 월드컵 축구 경기장으로 달려갔다. 한때 월드컵 축구가 나라를 살리는 비방이라도 되는 것처럼 온 국민의 관심을 끌기도 했다. 그러나 스포츠도 역시 적대적이거나 대결을 수반할 수밖에 없다. 정치의 경우는 더욱 심했다. 지난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보여진 정당간의 극심한 대립과 상호 비방은 지난 50년 헌정사의 악습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못한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마침내 여야간의 평화적 정권 교체를 이뤄냄으로써 한국 정치는 과거에 비해 크게 진일보한 모습을 보였다.

적대와 대결은 승리자에게 잠시나마 승리의 쾌감을 가져다 줄 수 있다. 그러나 패배한 자에게는 극도의 허탈감과 그 허탈감으로 인한 또 다른 적대와 분노로 표출될 수 있다. 다행히 우리는 정치인들간의 서로 화합하고 화해하는 모습을 여러 매스컴을 통해 볼 수 있었다. 지금 우리 사회에 필요한 것은 적대와 대결을 정당화하고 격려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와 화해라는 것을 보여준 극적인 광경이었다. 국민들은 성숙된 시민의식을 보여줬고 이것은 그대로 남북관계에도 적용될 수 있다.

우리 역사는 고난과 투쟁의 역사였다. 아놀드 토인비(Arnold J. Toynbee)가 말한 도전에 대한 응전이 역사라면 우리의 내부적 도전은 역사를 관통하며

줄기차게 내려온 것이다. 일제 강점기를 거치며 해방을 맞아 모처럼 국운 부흥의 계기가 됐으나 미국과 소련의 남북 분할 점령으로 한국은 3·8선을 경계로 남북으로 갈리는 상황이 되었다.

이같은 국토 분단의 책임 소재에 대하여 우리 민족 내부의 책임인지, 아니면 강대국의 국제적 책임인지에 대해 열띤 논의가 있어왔다. 지금까지의 논의에서는 대개 미국이 한반도 분단을 결정한 데 대하여 소련이 동의하였다고 하는 국제적 요인을 중시하는 경향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 국제적 요인의 중시는 한반도 분단의 내부적 요인들을 너무 경시하는 과오를 범하는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¹⁾ 실제로 한반도 분단의 국제적 요인에 관심을 표명하는 학자들은 한반도가 주변 강대국들에 의해 오래 전부터 분할의 대상으로 주목을 받아왔다는 것을 중시한다.²⁾

민족분단의 원인은 일제 치하에서부터 찾아야 하며 당연히 우리 민족의 민족주의와 독립운동에 대해서도 조명해야만 한다. 1910년 8월 일제에게 합병을 강요당했던 우리 민족은 1919년 3월 1일의 전국적인 독립만세운동을 계기로 1920년대 이후 가열찬 항일투쟁을 벌였다. 이같은 독립운동은 일제의 병력 동원과 간악한 탄압으로 인해 투쟁의 무대가 국내뿐 아니라 미국과 소련, 그리고 중국 등으로 나뉘었고, 중국의 경우에도 화북과 상해 및 만주 등지로 나뉘었다.

이같은 지역적 분산에 더해 이념적 대결도 심각한 양상을 띠기 시작했다. 여러 갈래의 이념 노선이 극단적인 대결을 보임으로써 독립 운동이 통합성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심지어 광복 이후 이뤄야 할 새 조국의 미래상에 대해서도 의견을 달리하여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세워야 한다는 세력으로부터 공산주의 국가를 세워야 한다는 세력에 이르기까지 그 이념적 미래상이 상이했던 것이다.³⁾

“민족주의나 공산주의자가 다같이 항일투쟁을 한다고 하면서도, 기본적인 이념과 노선의 차이 때문에 협동전선을 구축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1) 김학준, “한반도 분단의 대내외적 요인,” 「국제정치론총-제27집 제1호」(서울: 한국국제정치학회, 1987), p. 41

2) 정용길, 분단국통일론(서울: 고려원, 1990), pp. 197~8

3) 김학준, “분단사의 재조명,” 이흥구 외, 「분단과 통일 그리고 민족주의」(서울: 박영사, 1986), pp. 28~9

서로 적대관계에까지 있었다고 하는 이 역사적 사실 속에서, 우리는 1945년의 국토 분단의 민족 내적 요인을 볼 수 있는 것이다”⁴⁾ 라는 견해는 부정할 수 없는 역사적 진실이다. 미·소 양국의 전략적 이해의 상치뿐만 아니라 한민족 자체 내부의 분열 때문에도 국토분단의 비극이 잉태되었던 것이다.

제2차 세계대전이 종막을 고하자 아시아와 아프리카에는 민족주의가 거세게 피어올랐다. 유럽의 많은 식민지 종주국들은 아시아, 아프리카 지역의 많은 민족국가들이 독립하는 것을 속수무책으로 바라보아야만 했다. 영국 수상 맥밀런(Harold Mcmillan)이 1960년 1월 아프리카를 순회하는 여행을 하던 중 한 연설이 이같은 상황을 잘 말해준다. ‘변화의 바람’이란 이 연설은 종전 후 20여 년 사이에 세계 인구의 약 3분의 1이 식민지 지배로부터 해방된 상황을 언급하고 있다.

“우리는 수세기 동안 열강에 의존해 살아온 사람들이 민족의식을 각성하기 시작하는 것을 지켜보아 왔다. 15년 전 이런 운동은 아시아 전역을 휩쓸었다. 거기에 있는 다른 인종과 문명을 지닌 많은 나라들이 독립생활에 대한 자신의 요구를 주장했다. 오늘날 똑같은 일들이 아프리카에서 일어나고 있고, 한 달 전 본인이 영국을 떠난 이래 본인이 받은 인상중 가장 두드러진 것은 아프리카에서 각성되고 있는 민족의식의 힘이 매우 크다는 것이다. 변화의 바람은 대륙 전체에 불고 있고, 우리가 그것을 좋아하든 말든 이와 같은 민족의식의 성장은 하나의 정치적 사실이며, 우리 국가의 정책은 그것을 고려해야 한다.”⁵⁾

전후에 일어난 탈식민지화는 몇 가지 역사적 사건들에 의해 촉발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 중 하나가 전쟁으로 인한 유럽 식민 열강들의 힘의 약화를 들 수 있다. 전쟁 중에 이미 서구 열강들은 식민지를 잃기 시작했고, 전쟁 후에도 식민지에 대한 통제력을 회복하기가 어렵기는 마찬가지였다. 전쟁으로 인한 피해는 식민지 유지에 대한 부담을 떨쳐버리도록 만든 것이다.

또다른 이유로는 식민지 자체의 민족주의적 자각을 들 수 있다. 이는 서

4) 이명영, 권력의 역사: 조선노동당과 근대사(서울: 성균관대학교출판부, 1983), pp. 6~7

5) James H. McBath, ed, British Public Addresses, 1828-1960 (Boston: Houghton-Mifflin Co., 1971), pp. 75~83

구의 대학에서 교육받은 식민지 엘리트들이 민주주의와 자치의 가치를 주장하기 시작했고, 민족주의에 대한 요구를 거세게 하면서 심화되었다. 전쟁에 참여한 동맹의 관계에 대한 보상의 성격을 띠는 자치와 자유 요구는 열강들의 국력 쇠퇴와 맞물려 힘을 얻기 시작했다.

아시아에서의 독립운동은 미국의 지배하에 있던 필리핀과 영국의 지배하에 있던 버마·인도의 경우처럼 평화적으로 성취된 경우가 있었는데도 하던 인도차이나처럼 기나긴 유혈 투쟁 끝에 독립을 쟁취한 경우도 있었다. 어느 경우에도 독립을 이룬 힘은 민족의식의 발전과 민족주의 대두였을 뿐 열강 스스로 이를 원했던 것은 아니었다. 영국도 마찬가지로 처어칠(Winston L. S. Churchill) 수상같은 이는 인도 통치에 대한 미련을 공개적으로 밝히기도 했다.

“우리는 영구히 인도의 실질적인 통치자로 남아 있을 계획이다. …… 우리는 우리의 것을 장악할 생각이다. 본인은 국왕폐하의 수상으로서 영 제국의 파산을 관장하고 싶지 않다. 여기에 우리가 있고, 이처럼 표류하는 세계에서 구원의 진정한 반석으로 우리는 여기에 남아 있다.”⁶⁾

한국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어서 민족의식의 발전과 민족주의의 대두, 수십 년에 걸친 유혈 독립 투쟁,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의 종막이라는 세계사적 변수에 의해 한국의 독립이 달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그 독립이 민족 전체의 완전한 독립이 아니라 분단의 시작이었다는 점에서 민족적 비극이 시작되었던 셈이다.

90년대까지도 한국에서 남북간의 상호 비방과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은 수도 없이 계속되어왔다. 휴전선 일대에서는 북한의 도발로 인한 무수한 총격전이 다반사로 일어나기도 했고, 북한의 마이크를 통한 직접적인 선전선동, 언론 매체를 통한 비방과 사실 왜곡 등도 수시로 자행되었다. 일례로 판문점 도끼만행 사건 같은 경우는 북한군이 판문점에서 유엔사 소속의 미군 장교를 살해하는 전대미문의 폭거로서 전쟁 직전의 상황까지 몰고가기도 했다.

6) Francis G. Hutchins, *India's Revolution: Gandhi and the Quit India Movement* (Cambridge, Mass: Havard University Press, 1973), P. 143

그러나 북한경제는 90년대에 들어서 줄곧 마이너스성장을 해왔고 이것이 남북 화해의 중요한 전기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다. 현재 외화고갈로 인해 식량 생산설비 원자재도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정치안정에까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된 북한 정권은 경수로 협상 등을 통해 실리를 추구하려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만약 극심한 식량난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핵심권력층 내부의 노선투쟁과 권력투쟁, 광범위한 반체제 민중운동 등이 정치안정에 영향을 미칠수 있다는 사실을 북한 권력층은 우려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현재 김정일(金正日)이 절대권력을 행사하고 있어 노선투쟁이나 민중투쟁은 상상할 수도 없다. 앞으로 북한이 4자회담 등 대내외적 형세를 활용해 북한현실에 적합한 개혁·개방정책을 시행할 수 있다면 멀지않아 경제난을 극복하고 사회안정도 이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남북관계의 변화 여부는 전적으로 김정일의 태도에 달려 있다. 그러나 그의 최대 목표는 남북관계 개선이 아니라 북한내에서 정권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다. 만약 남북관계를 개선하는 것이 정권 유지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면 김정일은 남북대화에 응할 것이다. 외부 세계와의 접촉 기준도 정권유지에 도움이 될 것인가가 판단 기준이 될 것이다.

북한은 식량난, 에너지부족, 사회자본 미비 등 경제여건이 극도로 악화된 상태지만 상대적으로 정치체제는 안정돼 있다. 따라서 북한은 핵개발 의혹 등 온갖 수단을 동원, 체제안정에 주력해나갈 것이다. 한국 정부 역시 북한의 붕괴를 원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체제안정은 한층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북한은 김정일 비서의 국가주석 취임을 당분간 보류한 채 복수 부주석제 도입 등을 통해 정상외교에 대처할 가능성이 있다.

한국은 현재 국제통화기금(IMF)긴급자금지원을 받는 경제위기 국면에 처해 있다. 이는 북한에 대한 식량지원 등 남북대화 계기 마련에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남북관계의 돌파구를 찾는 방안으로는 남북이산가족 찾기운동을 재개한뒤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남·북 양측은 상호불신으로 이산가족 상봉을 재개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를 인도적 차원에서 재개해야 한다. 이달 중 지미 카터(James Jimmy Carter) 전 미국대통령이 남북한을 차례로 방문할 예정이어서

정상회담 실현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돌과구 마련은 쉽지 않아 보인다. 북한은 대내 선전용으로 한국의 경제위기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여기서 한걸음 더 나아가 의도적으로 한국의 급진적인 학생 및 노동계와 연대해 한국정부의 전복을 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한국에서 앞으로 대규모 파업이나 시위 등 사회불안이 조성되면 96년 잠수함 침투사건과 같은 보다 공격적인 수단을 동원, 남한사회를 교란시키려 들 공산이 크다. 북한이 공작원을 파견해 요인 암살이나 남한 주요 시설의 파괴 등을 노릴 가능성도 없지 않다.

다행히도 새해는 남북 분단 이래 최초로 양측의 최고지도자가 동시에 교체되어 새로운 정책을 펴는 해라 할 수 있다. 이같은 계기를 잘 활용하면 금년 중 남북대화가 재개돼 한반도통일을 위한 새로운 기틀이 마련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양측이 군비를 축소하는 등 보다 많은 자금과 인력을 경제건설에 돌리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북한이 만성적인 경기침체로부터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큰 이유는 적재적소에 노동력을 집중시키지 못하는 것은 물론 군사 부문에 과다하게 노동력을 배치하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GNP에 대비하여 지나친 국방비의 지출도 문제라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경제부문에 진력해온 한국은 북한의 GNP와 1인당 GNP와의 격차를 매년 크게 벌려왔으며, 그 격차는 매년 심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⁷⁾

한편 4자회담이 준고위급 회담에 이어 본회담으로 본격화되고 있다. 올해 4자회담은 앞으로 여러 차례 회담이 계속되는 동안 많은 우여곡절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나 한반도 평화체제는 반드시 이뤄지리라고 믿는다. 한반도문제의 궁극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남북한 화해와 상호신뢰뿐만 아니라 북·미 관계 개선과 정상화도 시급하다. 앞으로 열리는 4자회담에서 이같은 현안들이 동시에 풀려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새 대통령 취임후 4자회담이 본격화되면 남북간 평화협정체결, 주한미군 철수문제, 이산가족 상봉문제, 미군병사유해 반환문제 등이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전망한다. 북한은 그러나 미국만을 대화상대로 하기 때문에 4자회담

7) 통계청 편, 남북한 경제사회상 비교 (1997. 12.), pp. 14~16

의 진행 속도는 북·미 대화의 진전여부에 좌우될 수밖에 없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4자회담이 남북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일정 부분 기여할 것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이것을 남북관계 발전의 결정적 돌파구로 간주할 수는 없다고 본다.

4자회담은 남북한간의 평화통일을 목표로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미국과 중국이 이 회담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될지는 향후 어떤 여건이 조성되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질 것이다. 가장 시급한 것은 대북(對北)정책의 기초를 마련하는 것이다. 냉전시대의 사고방식과 인식에서는 올바른 대북정책 기초가 나올수 없다. 남북간의 상이한 사상과 정치체제는 현실로 존재하고 있다. 4자회담 활성화를 위한 방안의 하나로 한국의 대기업들이 대북 경험에 앞장서도록 해야하며, 북한 동포 돕기 민간운동도 적극 고려할 때다.

한국으로선 주변 열강들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남북대화에서 기선을 제압하는 것에 대해 신중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이를테면 한반도 통일에 대해 일본과 중국은 미온적이라는 평가가 있으며, 일본의 자민당내에서도 하시모토 류타로(橋本龍太郎) 총리와 오부치 게이조(小淵惠三) 외상간에 시각차가 있을 정도이다. 굳이 말하자면 남북통일을 지원하는 것이 기본원칙이지만 분단상태가 계속되기를 바라는 의견도 일본내에는 상당수 존재하고 있다. 일본으로선 북한과의 국교정상화가 시급한 입장이다. 따라서 한국은 「한반도문제의 한반도화」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 주변 강대국의 한반도정책은 자국의 이익을 우선시하기 때문에 통일을 저해하는 요소들도 있다. 남북관계가 개선되고 양측이 한반도의 참주인이 되어 정세를 주도해나간다면 주변강국은 그 보조역할을 맡게될 것이다. 한국은 한반도문제의 당사자이기 때문이다.

북한은 1953년 휴전 이후 일관된 대남 정책을 견지하고 있다. 그것은 남한을 격하하고 한미관계를 이간시키려는 것이다. 북한은 또한 미국과의 직접적인 대화를 모색해왔으나 미국이 이를 거부해왔다. 그러다가 극심한 식량난에 봉착하자 어쩔 수 없이 4자회담에 응했으나 남북간의 직접 대화는 여전히 외면하고 있다. 한국은 이같은 상황에서 개최되는 4자회담에서 주도권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급선무이다. 한국과 미국은 북한의 일관된 대

남(對南) 적대 태도를 결코 용납해서는 안된다. 한국이 미국과 함께 이런 기조를 유지하면서 중국을 끌어들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남북 분단이 당초 외세에 의해서 타율적으로 초래된 것임은 주지의 사실 이거니와, 그 분단 상태가 오래도록 지속되고 있는 것도 따지고 보면 외세의 작용 탓이다. 그러나 분단 상태의 해소를 난감하게 만들고 있는 요인들 중에 우리 민족 자체의 요인이 짙게 게재되어 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6·25전쟁을 겪은 이후로 남북간에 민족 사회의 재결합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알게 모르게 또 구조적으로 누적되어왔기 때문이다. 한국의 경우에 있어서도 북한 현실을 의도적으로 미화하고 자유민주체제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려는 반체제적 급진좌경사상이 척결된 바탕 위에서 냉철하게 통일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⁸⁾

그러면 한국의 새 정부가 한반도 통일을 위해 해야 할 우선과제는 무엇인가. 무엇보다도 경제위기 극복이 시급하다. 통일정책으로는 남북대화 재개를 서둘러야 한다는 생각이다. 남북대화가 재개되면 이산가족상봉,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의 경수로건설사업 경비문제, 두만강개발에 대한 정부보증문제 등 현안을 놓고 진지하게 협의할 필요가 있다. 김대중 정부는 IMF협정을 철저히 이행하면 경제를 희생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다만 이 과정에서 북한이 현재의 한국 상황을 악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다. 북한군의 월경 행위나 남한내 파괴활동 등 군사적인 모험을 감행하지 못하도록 저지해야 한다. 이 두 가지가 이뤄진뒤에 비로소 북한과의 협상을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한국의 새 정부는 주변 4강과의 외교전략을 재점검하여 주변국들과의 관계 발전에 신경을 써야할 것이다. 러시아는 대북 지원에 소극적이어서 북한에 대한 영향력은 중국에 비해 미미하다. 러시아는 일본과 함께 4자회담에 참여하는 「6자회담」 구상을 제안하고 있고 일본내에서도 이에 동조하는 시각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북한측이 러시아, 일본을 상대하지 않을 것이 분명하다. 북한은 일본을 경협파트너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8)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편, 평화통일민족운동사, 제3집(서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1988), pp. 221

한편 중국의 한반도 문제에 대한 태도가 불분명한 것은 사실이나 중국은 최근 뚜렷한 태도변화를 보이고 있다. 중국은 남북대화과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지지하는 쪽으로 움직이고 있으며 한반도에서의 무력 충돌 상황을 결코 원치 않고 있다. 일본은 금융위기의 한국을 지원하기 위해 단일국가로서는 최대의 융자금을 한국에 제공하고 있는 나라이다. 일본이 향후 한국의 경제 개혁문제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임은 자명하다.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남북당사자가 각각 대북·대남정책의 올바른 기초를 마련하면 남북정상회담은 언제라도 성사될 수 있는 문제다. 남북정상회담은 특히 김일성 주석의 유흔인만큼 김정일도 하려고 할 것이고 한국의 새대통령 역시 이를 진지하게 다룰 것이다. 하지만 한반도 평화체제구축의 방향 등 가닥이 잡혀야 한다. 이같은 사전 준비 없이 정상회담을 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며 무의미하다.

한반도통일 시기에 대해서도 의견은 다양하지만 통일은 북한의 체제붕괴를 막는 방향으로 강구돼야 한다는 것에 대체적인 의견 접근을 보고 있다. 흡수통일이 실현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지만, 어느 시점에 가서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공화국과 같은 체제로 이행하면서 느슨한 형태의 통일국가가 형성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말하자면 베트남식 무력통일이 되어서도 안되고 독일식 흡수통일도 한반도실정에 맞지 않다. 중국은 현재 홍콩 마카오에 이어 대만과도 일국양제(一國兩制) 방식으로 통일을 실현하려 하고 있다. 한반도에도 이같은 방식이 원용될 수 있다고 본다.

우선 북한의 경제 붕괴, 한국의 경제 위기, 북한의 호전성 및 비무장지대에서의 무력 강화 등의 문제가 조심스럽게 현실적으로 해결되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한국의 새 정부는 ▲남북한 평화체제 구축 ▲북한 경제 개혁 ▲북한 군비 축소 ▲신뢰 구축 ▲양국 정상간 핫 라인 설치 ▲각급 남북대화의 정례화 ▲상호 군사 위협 제거 등을 착실히 추진해가야 할 것이다.

3. 진정한 통합과 통일을 위한 방법으로서의 해원상생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남북 관계에 대한 전망은 밝다. 따라서 이를 사상적으로 뒷받침한다면 통일의 후유증은 훨씬 줄어들 수 있다. 본 논고에서는 이러한 사상적 기반의 하나로 증산이 역설한 해원상생 사상을 토대로 논구해보고자 한다. 증산의 사상은 그의 언행을 담은 대순진리회(종단)의 정전(正典)인 『전경』(典經)에 잘 드러나 있다.

증산은 청년기에 들어서면서 우리 민족의 큰 불행이었던 동학전쟁을 몸소 겪게 된다. 우리 민족사상 큰 전환기가 된 동학전쟁을 통해 증산은 누란의 위기에 처한 민족의 운명을 내다보고 천지공사를 통해 천지의 도수를 바로 잡고자 했다.

증산은 일찌기 후천개벽을 외치며 민중의 해원상생(解冤相生)을 위한 천지공사(天地公事)에 주력했다. 천지공사를 통해 역사의 흐름을 돌리고 척을 짓지 말 것을 강조했으며, 해원상생을 통한 인류 평화를 제창했던 것이다. 이같은 사상은 우리 민족의 미래와 연관지어서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한반도의 평화정착과 민족화합을 위해서는 진정한 통합과 통일을 위한 사상적 기반이 갖춰져야만 한다. 본 논문에서는 이같은 방안의 하나로 해원상생을 논구하고자 한다.

반세기가 넘게 겨레가 갈라서 있는 한반도에서 통일 이후 후유증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한데 그것은 일찌기 척을 짓지 말라고 강조한 증산의 해원상생 사상을 통해 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인도적인 접근이야말로 통일 이후까지를 대비한 바람직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우선 북한의 당면한 경제난을 해결해줄 경제개혁이 선행된 이후 통일문제에 대해 접근하는 것이 한 방법이 된다. 북한의 금융, 산업, 농업 등 전 분야를 먼저 개방토록 유도, 외국 자본이 유입되도록 한뒤 통일을 이룰 수 있다면 통일 비용을 줄일 수 있다. 만약 북한이 갑자기 붕괴할 경우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북한은 이미 알려진 것처럼 핵문제에 있어서 결코 안전한 나라가 아니다. 북핵문제는 제네바 기본합의문에 따라 핵 동결 조치 및 폐연료봉 처리가 이뤄지는 등 일정부분 핵문제가 해결되는 방향으로 진전되고 있다. 그러나 북

한이 은폐하고 있는 핵 폐기물 저장소 등에 대한 특별사찰은 여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현재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다는 뚜렷한 징후가 없는 만큼 지나친 억측으로 남북한의 불신과 적대의식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피할 필요가 있다.⁹⁾

다만 화학무기 등 북한의 대량 살상무기는 여전히 남아있으며 현 북한 정권이 존속하는 한 그 위험성은 증대될 수밖에 없다. 갑작스러운 붕괴는 예상치 않은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말이다. 북한은 북·미 기본합의서에 따라 지난 94년 11월 모든 핵설비와 실험실을 폐쇄했으며 현재 국제원자력기구의 정기적인 사찰을 받고 있다. 그러나 북핵문제 등을 위해 해결해야 할 길은 멀기만하다.

김정일은 “조선반도에서 북침위협이 없으면 남북사이의 군사적 대결 상태는 해소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한국도 ‘결코 북침은 없을 것’이라고 한다. 실제로 한반도에서의 군사대결은 무의미하다. 북한은 여전히 동북아의 안정을 위협하는 가장 위험한 국가로 분류돼 있지만 북한이 전면전을 일으킬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그러나 공산주의자들의 전략 전술에 따라 상대방의 힘이 약화됐을 때는 물리적인 공격을 가해오는 게 상례이므로 북한이 국경 침범, 요인 암살, 한국내 파괴 활동 등의 도발을 할 가능성은 결코 배제할 수 없다고 본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남북 분단의 원인과 근인은 다양하고 복합적이어서 그 해결에 있어서도 신중한 자세와 접근이 필요하다. 증산은 이같은 분단의 원인과 근인을 분리하여 분단과 남북간의 전쟁 등 일련의 상황이 일찌기 역사의 순환논리에 의해 예견될 수 있는 역사적 상황임을 암시하고 있다. 증산은 일찌기 이런 상황을 예견하고 역사의 흐름을 얘기한 일이 있다.

증산은 어느 날 종도들이 모여 있는 자리에서 “묵은 하늘은 사람을 죽이

9) 최근의 미국 정보국(DIA)은 한 비밀보고서에서, 북한이 자강도 하갑지역에 지하 핵시설을 건설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정부 당국은 지난 94년 귀순한 강명도(康明道: 姜成山 총리 사위) 씨가 자강도 동신군 김단골 지역에 북한의 극비핵시설이 있다고 증언한 이후 미 정보당국과 함께 인근지역에 대해 24시간 추적을 해왔다. 그러나 정부 당국자는 이곳에 지하시설이 있다는 사실만 확인했으며 현재로서는 핵시설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지는 못했다고 밝혔다. 세계일보, 1998년 2월 3일

는 공사만 보고 있었도다. 이후에 일용 백물이 모두 핏절하여 살아나갈 수 없게 되리니 이제 뜯어고치지 못하면 안되느니라” 하고 사흘 동안 공사를 본 뒤 말하기를, “간신히 연명은 되어 나가게 하였으되 장정은 배를 채우지 못하여 배 고프다는 소리가 구천에 달하리라” 고 하였다.¹⁰⁾

해방 후 혼돈의 늪 속에 빠져 있던 한국은 연이어 6·25를 겪으며 골육상쟁의 비극에 빠져든다. 하늘은 포연에 휩싸여 터진 곳이 없을 정도였으며 먹을 것이 없어 보릿고개를 넘기지 못하고 굶주림에 떠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였다. 증산은 이러한 상황 뒤에 한 세력이 다른 세력을 일방적으로 돌봐준 뒤 통일의 대업을 이룰 것임을 비유적으로 말하기도 했다.

“현하 대세가 오선위기(五仙圍碁)와 같으니 두 신선이 판을 대하고 있느니라. 두 신선은 각기 혼수하는데 한 신선은 주인이라 어느 편을 혼수할 수 없어 수수방관하고 다만 대접할 일만 말았나니 연사에만 큰 흠이 벗이 대접만 빠지지 아니하면 주인의 책임은 다한 것이로다. 바둑이 끝나면 판과 바둑들은 주인에게 돌려지리니 옛날 한 고조(漢高祖)는 말위에서 천하를 얻었으되 우리나라는 좌상(座上)에서 득천하 하리라.”¹¹⁾

증산이 일찌기 후천개벽을 외치며 해원상생을 위한 천지공사에 주력한 것도 이처럼 올바른 역사의 방향을 찾기 위해서였다. 각자가 척을 짓지 말 것을 강조했으며, 증산 스스로는 천지공사를 통해 역사의 흐름을 돌리고자 애썼다. 해원상생을 통한 인류 평화를 제창한 증산의 사상은 우리 민족의 미래와 연관지어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10) 대순진리회교무부 편, “공사: 1-11.”, 「전경」(서울: 대순진리회출판부, 1989), p. 100

11) 같은 책, “예시: 28.”, p. 318

Ⅱ. 인간의 일반적 욕구와 갈등

1. 욕구의 다양성

증산은 일찍이 한(恨)의 청산을 통한 올바른 역사 발전을 주창했다. 이 한의 근원은 인간의 사유 체계와 행동에 있어서의 갈등에서 찾을 수 있다. 인간의 행동에는 무언가 뚜렷한 동기가 있기 마련이다. 그 동기와 갈등의 상관 관계를 밝히는 것은 이상행동(異常行動)과 같은 돌출적 파괴 행동을 막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사람은 선하게든 악하게든 태어날 때부터 모두가 끊임없이 무엇인가 행동하고 있다. 이것은 바로 사람이 살아있기 때문일 것이다. 잠자는 시간에도 사람은 뇌파나 심장 박동, 그리고 호흡이나 꿈을 꾸는 행동을 통하여 살아 움직이고 있다. 그리고 거기에는 무엇인가 뚜렷한 동기가 깔려 있다.

동기(動機: motive)란 인간이 살아 움직이며 행동하게 하는 원인을 제공하는 것이며 인간으로 하여금(동물도 마찬가지) 어떤 목적을 향하여 특정한 행동을 취하도록 유도하는 상태를 말한다. 즉 유기체(有機體)를 내부로부터 움직여 행동의 실행 또는 목표 추구로 향하도록 하는 것을 말하며, 이러한 상태로 이끄는 것을 동기유발(動機誘發: motivation)이라고 한다.¹²⁾ 다시 말하면 동기란 인간의 요구나 충동(衝動) 등 인간으로 하여금 행동을 하게 하는 원인이며, 동기 유발은 이와 같은 원인으로부터 행동하는 과정을 말한다. 그러므로 동기가 없는 행동은 자유스럽지 못한 행동이며, 타의(他意) 및 어떤 강압(強壓)에 의하여 이루어진 행동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동기와 행동은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맥클랜드(D. C. McClelland)의 “동기란 개인이 갖는 의의(意義)와 중요성에 따라서 계층화된 감정적 색조를 띤 영상적 망조직이다”¹³⁾ 라고 한 말에서 알 수 있듯 동기의 개념은 연상과 감정의 두 개념으로 되어 있다. 즉 인간의 동기에는 매우 복잡하고 개인차가 있으며, 생리적 심리적 연

12) 愼鏞日·盧致淑, 教育心理學(서울: 동문사, 1994), p. 112

13) D. C. McClelland, Toward a Theory of Motive Acquisition, (American Psychologist, Vol. 20, No. 5, May, 1965), p. 322

상적인 면을 갖고 있어서, 지역적으로 가까운 곳이나 먼 곳에 있는 목적에도 나타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동기라는 말은 충동(衝動: drive), 욕구(欲求: need), 흥미(interest), 유인(誘因: incentive) 등과 관련되는 것으로서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서로 대치(代置)하여 사용돼도 무관하다 하겠다.¹⁴⁾

그러면 동기와 행동은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¹⁵⁾

첫째, 동기는 행동을 유발시킨다. 동기는 행동의 원동력이 되어 행동을 환기시키고 활력을 주어 행동하게 한다. 예를 들면 목이 마를 때는 신체적으로 근육이나 선(腺)에 생리적 반응을 일으켜 물을 찾아 마시는 행동을 하게 된다. 이것은 물을 필요로 하는 동기가 물을 마시게 하는 행동을 유발시킨 것이다.

둘째, 동기는 행동을 선택한다. 동기가 인간의 행동을 이끌고 또한 그 방향을 제시해 주게 된다. 즉 동기의 경중(輕重)에 따라서 행동의 순위가 결정된다. 예를 들면 물을 마시다가도 어떤 위급한 상황이 발생되면 물 마심을 즉시 중단하고 먼저 위급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행동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셋째, 동기는 행동을 방향지워 준다. 선택된 반응이 동기를 해소시켜 만족감을 줄 때는 일정한 방향을 향해서 행동하게 된다. 만약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동기 유발이 일어나지 않게 된다. 그러므로 동기는 행동 방향을 결정하는 기능을 갖는다는 것이다.

동기 및 욕구의 분류 기준이나 수(數)에 있어서는 학자들마다 다르다. 예를 들면 프레스코트(D. A. Prescott)는 인간의 욕구를 ① 생리적 욕구, ② 사회적 욕구, ③ 자아적(自我的) 욕구 등으로,¹⁶⁾ 돌프(L. P. Thorpe)는 ① 신체적 건전성을 유지하려는 욕구, ② 승인을 구하는 욕구, ③ 안정감 애정 쾌락을 구하는 욕구 등으로,¹⁷⁾ 던랩(K. Dunlap)은 ① 식욕, ② 배설욕, ③ 보호욕, ④ 활동욕, ⑤ 휴식욕, ⑥ 출세욕 등으로,¹⁸⁾ 마슬로우(A. H. Maslow)는 ① 생리적 욕구, ② 안전의 욕구, ③ 사회적 욕구, ④ 존경의 욕구, ⑤ 자기 실현의

14) 李南杓 外, 教育心理學(서울: 형설출판사, 1975), p. 149

15) 敎職科研究協議會 編, 心理學概論(서울: 창학사, 1986), p. 104

16) D. A. Prescott, Emotion and Educative Process(1938), p. 144

17) L. P. Thorpe, The Psychology of Mental Health(N. Y.: Ronald Press, 1950)

18) K. Dunlap, Civilized Life(N. Y.: The Williams & Wilkins Co., 1935), p. 64

욕구, ⑥ 인지적 욕구, ⑦ 심미적 욕구 등으로 분류하고 있다.¹⁹⁾

여기서는 인간의 동기와 욕구를 ① 생리적 욕구, ② 사회적 욕구, ③ 자아 실현의 욕구 등으로 분류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그 이유는 인간의 욕구나 동기를 광의적으로 해석하면 모두가 이 세 가지의 욕구에 다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1) 생리적 욕구

생리적 욕구(Physiological needs)란 인간이 자신의 신체적 균형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욕구, 즉 유기체가 그의 생리적 조건에 균형을 유지하려는 경향을 말한다. 이것은 바로 인간의 일차적(一次的) 욕구이기도 하며 배고픔, 목마름, 성욕, 체온의 조절, 잠자기, 고통의 회피, 그리고 산소 공급(호흡)의 욕구 등이 포함된다.

2) 사회적 욕구

생리적 욕구는 선천적(先天的)인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유기체가 학습하지 않더라도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사회적 욕구(Social needs)는 주로 인간 관계와 관련되어 다양한 행동 양태로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즉 다른 사람과 어울리고 싶어한다든지 어딘가에 소속하고 싶어하는 욕구를 말한다. 다시 말하면 사회적 욕구는 사회적 관계와 상황에서 획득되며, 하나의 성격적인 특질로서 각 개인마다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인간의 이차적(二次的) 욕구이기도 하다. 여기에는 성취, 애정, 지위, 명예, 소속, 참여, 독립, 건강, 체격, 안정, 기호, 쾌락, 흥미, 획득 등이 포함된다.

19) 마슬로우는 그의 저서 「동기와 성격」(Motivation and Personality)에서 인간 동기의 위계론을 정립하였다. 즉 인간은 기본적으로 다섯 가지 종류의 욕구, 즉 생리적 욕구, 안전의 욕구, 사회적 욕구, 존경의 욕구, 자아 실현의 욕구가 있다고 하였다. 후에 마슬로우는 다섯 가지 욕구에다 인지적 욕구와 심미적 욕구를 추가하여 일곱 가지의 동기단계이론을 제시하였다. A. H. Maslow, A Theory of Human Side of Enterprise, Harold J. Leavitt and Louis R. Pandy(ed.), Readings in Managerial Psychology(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64), pp. 6~16

3) 자아 실현의 욕구

자아 실현의 욕구(Self-actualization needs)²⁰⁾란 한 인간으로서 자기 발전을 위해 실현할 수 있는 자신의 잠재능력을 극대화시키려는 욕구이며 자기 완성에 대한 갈망을 의미한다. 대부분 생리적인 결핍 상태의 충족을 필요로 하는 생리적 욕구와 사회적 관계와 상황 속에서 자신을 적응시켜 보존하려는 사회적 욕구는 서로 긴밀한 관련을 갖는다. 그러나 이와는 다른 각도에서 인간은 각각 그들 나름의 고유한 개성을 실현하려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을 하고 이 고유의 개성을 직접 체험하고, 통일을 기하고 탐색하고 표현하려는 선천적인 성향이 있는데 이러한 성향을 자아 실현의 욕구라 한다. 이것은 바로 인간의 삼차적(三次的) 욕구이기도 하며 현실과의 접촉, 상징화의 진전, 자기 지도의 증대, 성공과 실패의 균형, 능력의 발휘 등이 포함된다.

이와 같이 인간의 동기는 첫째, 복잡성과 다양성을 갖고 있다. 인간의 행동은 하나하나의 동기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하나의 동기에는 여러 가지 동기가 복합되어 일어난다. 결혼의 예를 들어 보자. 결혼 동기에는 애정, 안정감, 사회적 승인, 성생활 등 여러 가지의 요구가 그 동기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개인성을 갖고 있다. 인간의 동기는 학습과 성숙을 통하여 변화한다. 욕구 상태가 같다 하더라도 그것의 달성 방법에는 각자 살아오면서 터득한 생활 경험과 성숙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이다. 셋째, 생리성과 표상성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인간의 일차적 동기는 어디까지나 생리적 동기이다. 인간은 생리적 균형과 안정을 찾으려는 동기가 있고, 이차적인 인격적 사회적 동기가 있고, 삼차적인 자아 실현의 동기가 있기 때문이다.²¹⁾

따라서 인간은 먼저 생리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다음으로 사회적 욕구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한다. 이러한 욕구가 충족되면 자아 실현

20) 인본주의 심리학자 마슬로우(A. H. Maslow)는 그의 대표적 저서인 「동기와 성격」에서 인간의 잠재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자아 실현(自我實現)이 「심리학적 건강」임을 주장하며 동기의 위계론(Hierarchy of Motivation)을 정립하였다. A. H. Maslow, *Motivation and Personality*(New York: Harper & Row, 1954).

21) 육군사관학교심리학과 편, 심리학(서울: 박영사, 1995), p. 226.; 金訓基, 心理學概論(서울: 학서당, 1997), pp. 127~128.

의 욕구를 이루기 위해 힘을 기울인다고 할 수 있겠다. 즉 인간의 욕구는 생리적 욕구로부터 자아 실현의 욕구에 이르기까지 단계를 이루고 있으며, 낮은 수준의 욕구가 이루어져야 그 다음 단계의 욕구가 생긴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일반적으로 어떤 개인의 생리적 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사회적 욕구가 생길 수 없으며, 마찬가지로 사회적 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자아 실현의 욕구가 생길 수 없다는 것이다.

2. 갈등의 다양성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인간의 욕구는 매우 복잡하고 다양하다. 그러한 욕구가 모두 하나같이 효과적으로 적절히 달성될 수만 있다면 우리 인간에게 아무런 긴장 상태도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인간의 욕구라는 것은 항상 그렇게 쉽게 채워지지 않는다는데 심각한 문제가 있다. 즉 자신의 목표 달성이 방해되거나 실패하게 되면 자연 참기 어려운 내적 긴장 상태가 나타나게 된다. 그럴 때 인간은 모든 장애물을 극복해야 하고, 선택을 해야 하고, 지체됨을 참아야 한다. 즉 인간은 자기 인생에 적절하게 적응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한다. 결국 인간이 자기 인생에 어떻게 얼마나 잘 적절하게 적응하느냐 하는 것은 좌절 상황에서의 자신의 반응에 달려 있다 하겠다.

1) 욕구 불만

욕구불만(Frustration)이란 인간의 욕구가 물질적인 방해나 다른 사람의 반대에 의하여 욕구가 저지되어버리는 상태를 말한다. 즉 인간은 자신의 목표 달성이 방해되거나 실패하면 오히려 참기 어려운 내적 긴장 상태를 가지게 된다. 이 때의 긴장 상태를 욕구불만이라고 한다.

욕구불만은 대개 자신의 생활체가 장애에 의하여 욕구의 만족을 저지당했을 때 발생한다. 즉 자신의 원하는 목표를 향한 과정이 막히거나 지연되었을 때 생긴다. 여기에는 외부적인 것과 내부적인 것이 있다. 외부적인 것에는 물리적 환경과 사회적 환경이 있다.²²⁾ 물리적 환경은 시간적으로, 공간적

22) 李忠元, 教育心理(서울: 학문사, 1991), p. 313.; Rita L. Atkinson, Richard C. Atkinson, and Ernest R. Hilgard, Introduction to Psychology(1979); 李勳求 譯, 現代

으로, 또는 경제적으로 생기는 요인을 말한다. 예를 들면 교통 혼잡, 슈퍼마켓에 늘어선 손님들, 농사를 망치는 가뭄, 그리고 시끄러운 소음 등이 있다. 사회적 환경은 관습이나 통제, 금지(禁止)나 타인 등에 의해 생기는 요인을 말한다. 예를 들면 부모의 간섭에서부터 인종, 종교, 또는 성적 차별 등의 문제가 있다. 내부적인 것에는 개인 자신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한계에서 비롯되는 경우를 말한다. 예를 들면 신체적인 결함, 특별한 능력의 부족, 혹은 부적절한 자기 억제 등이 있다. 즉 누구나 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우수한 축구선수나 음악가, 의사나 법률가 등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2) 욕구불만의 내성

욕구불만은 일반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행동을 하거나 이상한 행동을 유발시키게 된다. 그러나 동일한 사건,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행동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하면 욕구불만에 대한 반작용으로서 나타나는 행동은 그 개체의 능력이나 욕구 수준에 따라 모두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욕구불만에 견디어 내는 능력을 욕구불만 인내성(忍耐性) 또는 내성(耐性: frustration tolerance)²³⁾이라고 한다.

욕구불만 내성은 욕구불만이 주어졌을 때 그것을 참고 견디며 그것을 해소하는 과정을 학습하고 획득하는 것이다. 욕구불만을 갖게 되면 심리적 긴장은 높아진다. 긴장 해소 방법이 바람직한 것일 때에는 적응에 도움을 주고, 인격 형성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 그러나 긴장의 정도가 너무 커서 욕구가 올바르게 해결되지 못하면 부적응(不適應)과 정신적 질환으로 발전되어 인격 형성에 혼란을 가져다 주게 된다. 다시 말하면 욕구불만은 어느 면에서 보면 부적응을 가져다 주는 근원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이 전혀 없으면 오히려 적응의 용이성이 불가능할지도 모른다. 따라서 욕구불만은 때에 따라서는 성격 형성 기능을 육성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욕구불만 내성(耐性)은 첫째, 일반적으로 의지, 의욕, 저항력, 집착심, 관용성 등의 성격(personality) 특성에 의하여 표현되고 있다는 것이다. 완

心理學概論(서울: 정민사, 1988), 436

23) 李忠元, 같은 책, p. 314

고하다든가 허세를 잘 부린다든가 하는 것 등은 어떻게 보면 독특한 내성을 형성한다. 그러나 그것 자체가 욕구불만에 대한 비합리적 반응에 의해 확립된 것이기 때문에 건설적이지 못한 경우가 많은 것이다. 둘째, 욕구불만 내성은 욕구의 만족을 지연시키는 능력이라는 것이다. 예를 들면 어린이나 어른이 갖고 싶은 물건을 갖지 못하거나, 가고 싶은 장소에 가지 못할 경우에 그것에 반항하거나 불만을 표시한다면, 그 사람은 욕구불만 내성이 없거나 낮은 사람이라는 것이다. 셋째, 욕구불만 내성과 현실 검증력(檢證力)은 자아의 중요한 구성개념이라는 것이다. 자신의 소망이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에 대해 그저 참고 견디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인내만으로는 자칫하면 부적절한 행동에 뛰어들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부적절한 행동을 유발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현실의 문제를 올바르게 분석 검토 파악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욕구를 개인적으로 통제하고 사회적으로 타당한 방법을 찾아 적절하게 대처하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태도를 현실 검증(reality testing)이라고 한다. 따라서 욕구불만 내성과 현실 검증력은 상호 중복된 개념으로 내성이 있어 검증력이 생기고 그 검증력이 있어 내성이 강화되는 것이다. 넷째, 현실 검증의 태도는 원래 사려적(思慮的)이고 지적 능력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 즉 모든 조건이 같은 경우에는 지적 능력이 높은 사람이 내성도 높다는 것이다.²⁴⁾

이와 같이 욕구불만 내성은 욕구 충족의 지연에 대한 반응을 본질적 기능으로 하여 분화적인 것으로부터 통합과정을 거쳐 점진적으로 전체적인 것으로 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3) 갈등의 양태

인간의 동기는 각양각색이라 누구나 다 갈등을 경험하게 되며, 그 양상도 다양하다. 지금 대학에 가야 할 것인가, 아니면 직장을 가져야 할 것인가? 지금 결혼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더 기다려야 할 것인가? 도시에 나가 살 것인가, 아니면 시골에 남아 그대로 살 것인가? 한달 월급을 다 써버릴 것인가, 아니면 저축을 할 것인가? 결혼의 상대로서 이 사람이 좋을까, 아니면

24) 같은 책, pp. 314~315

저 사람이 좋을까? 월급을 더 받는 회사로 갈 것인가, 아니면 보수는 적더라도 지금의 직장에 그대로 다닐 것인가? 결혼해 부모와 같이 살 것인가, 아니면 따로 나가 독립해서 살 것인가? 등 갈등 양상(樣相)은 많고도 많다.

인간의 갈등은 단순한 경우가 매우 드물다. 인간의 갈등은 너무나 복잡해서 그것의 극복은 차치하고라도 이해하기조차 힘이 들 정도다. 갈등 개념을 처음으로 제시한 학자는 프로이트(Freud)이다. 그는 인간 성격의 기본적 활동 영역을 원본능(原本能: Id), 자아(自我: Ego), 초자아(超自我: Super-Ego)의 세 가지 가정(假定)에 근거를 두고, 정상적인 인간에 있어서는 이 세 가지가 한 단위로서 서로 조화를 이루고 그 체계가 통일되어 작용하지만 신경증자(神經症者)에서는 성격 영역 사이에 부조화가 발생하는데 이것을 갈등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인간의 갈등 양상을 분류해 보면 다음과 같다.²⁵⁾

첫째, 갈등은 둘 혹은 그 이상의 동기가 있어서 그것을 만족시키려고 할 때에 양립(兩立)할 수 없는 경우에 생긴다. 욕구불만의 중요한 요인도 두 가지의 상반되는 동기 사이의 갈등에서 비롯된다. 두 동기가 갈등을 가질 때, 하나의 만족은 다른 하나의 욕구불만을 초래한다. 따라서 둘 내지 그 이상의 욕구가 동시에 존재하여 해결에 곤란을 느끼는 상태를 갈등(conflict)이라고 한다.²⁶⁾ 예를 들면 다른 사람의 처(妻)에게 애정이 있는 동시에 도덕적인 양심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경우이다.

둘째, 갈등은 개인의 내적 기준과 욕구 사이에서 나타난다. 성적인 욕구를 생각해 보자. 한 사람의 성적인 욕구는 일반적으로 사회적 통념에 어긋날지 모른다. 성취동기를 생각해 보자. 한 사람의 성취 여부는 때로는 동료와 친구들과 경쟁하게 되고, 때로는 이들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일까지도 있을지

25) 이드(Id)란 성격을 형성하는 가장 원시적이며 기본적인 심적 체계로서 自我와 超自我를 분화하는 역할을 한다. 심적 에너지의 근원으로서 무의식층(無意識層)에 자리잡고 있으며, 행동의 원인이 된다. 자아는 원래 이드의 일부인데 개인이 성장함에 따라 분화하여 별개의 기능적 실재를 형성한다. 자아는 思考·知覺·理解·筋肉活動 같은 것을 통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초자아는 인격내에 내면화한 양심으로서 대개 후천적으로 학습된 것으로, 부모가 가졌거나 示範하는 여러 도덕적 準則과 基準을 동일시함으로써 내면화되는 것이다. S. Freud, *The Interpretation of Dreams*(N. Y.: Hought Press, 1953); 李勳求 역, 앞의 책, pp. 436~437; 教職科研究協議會 편, 앞의 책, pp. 184~186

26) 金明勳 外, *心理學*(서울: 박영사, 1974), p. 203

모르기 때문이다.

셋째, 갈등은 대부분 어떤 목표가 동시에 바람직하기도 하고, 또 바람직하지 못한 경우에 생긴다. 즉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경우를 말한다. 예를 들면 사탕이나 아이스크림은 먹기도 좋고 맛도 좋으나 살이 찌는데 문제가 있다. 친구들과 어울려 놀러 다니면 재미는 있겠으나 공부할 시간을 빼앗긴다는데 문제가 있다. 어떤 목표를 동시에 원하기도 하고 원하지 않기도 하며, 좋아하기도 하고 싫어하기도 하는 경우가 있다. 이 때는 양면가치(ambivalent)의 태도를 갖게 한다. 이러한 양면가치의 태도는 매우 흔하게 나타나고 있다.

넷째, 하나의 목표가 매력적이긴 하나 동시에 위험 부담을 주는 경우에 갈등이 생긴다. 멀리서 보면 그 목표는 마음을 끌며 매우 매력적인 것으로 접근 방법을 초래한다. 그러나 그 목표가 점점 다가올수록 위험 부담이 가중되어 오히려 그 목표의 접근에서 후퇴하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면 좋아하는 사람에게 데이트를 신청하기 위해 전화를 걸고 싶으나 혹시 거절당할까 하는 불안에서 전화거는 것을 말설일 때가 있다. 이러한 종류의 갈등을 접근-회피 갈등(approach-avoidance conflict)이라고 한다.

이와 같이 갈등은 경중(輕重)의 차이는 있을망정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겪게 된다. 한 예로 영화 구경을 하려는 육구와 야구시합 구경을 가려는 육구가 있어 하나를 정하기 힘든 경우, 이 또한 하나의 갈등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즉 두 개의 끌어들이는 힘, 즉 「정(正)의 유의성(誘意性)」이 있는 경우 외에, 하고 싶지 않은 숙제를 하지 않으면 벌을 받는다는 경우와 같이 싫은 힘, 즉 「부(負)의 유의성」에 끼어 있을 경우, 남의 물건을 손에 넣고 싶으나 사회가 이를 허락하지 않는 경우처럼 대상이 동시에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유의성을 가지는 경우가 있다. 이럴 경우 갈등이 심해지면 장면도피(場面逃避)가 행해지고,²⁷⁾ 때로는 좌절감과 행동 이상(異常)이 생겨 자신을 나락으로 떨어지게 하는 결과를 낳는다는데 심각한 문제가 있다.

27) 世界大百科事典(서울: 학원출판공사, 1982), pp. 224~225

3. 욕구와 갈등 관계

인간은 여러 가지 욕구를 가지고 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욕구란 인간으로 하여금 어떤 목적을 향하여 특정한 행동을 취하도록 유도하는 상태로서, 유기체 내에 특별한 요구가 생겼을 때 그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부여하게 되는 내적 힘을 말한다. 인간은 그러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부단한 노력과 성취를 위해 행동을 한다. 따라서 개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욕구가 적절히 충족되면 개인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올바른 적응을 한다. 또 욕구는 인간으로 하여금 힘을 솟게 하고 흥분 상태에 놓이게 한다. 또한 인간은 그러한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표를 설정하며, 그에 따른 욕구의 행동화를 일으킨다. 이러한 욕구의 행동화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 스스로 변화하면서 계속적으로 생성되었다가 소멸되어가는 연속성을 갖는다. 그러나 그에 대한 행동의 양태는 사람마다 같지는 않다. 즉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같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시간과 상황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가 하면, 같은 시간과 상황이라 하더라도 사람에 따라 다르게 행동이 나타난다.

또한 인간의 욕구 달성은 그렇게 간단하게 성취되는 것은 아니다. 인간의 욕구가 자신의 생각대로 언제나 성취되면 욕구 좌절로 인해 긴장 상태는 생기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인간의 욕구 충족이나 목표 달성은 자신의 내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에 의해서 방해받거나 실패하는 경우가 많다. 그럴 때 인간은 자신의 욕구 좌절과 거부로 인해 정서적 긴장상태를 많이 갖는다. 그러한 상태를 욕구불만이라 하며, 특히 둘 내지 그 이상의 욕구가 동시에 존재하여 해결에 어려움을 갖게 될 때 갈등을 일으킨다. 갈등이 나타나면 인간은 일반적으로 자신의 심리 상태가 불안정하게 되며 원(冤)을 갖게 된다. 그러한 상태가 오래 계속되면 인간 행동에 잠재적인 위협을 주게 되며, 이상행동(異常行動)을 초래시킨다.

1) 갈등에 의한 성격 변화

인간은 갈등을 갖게 되면 여러 가지 심리적 변화 과정을 겪는다. 여기에 대해 가텔(R. B. Gattel)과 스웨니(A. B. Sweney)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²⁸⁾ 즉 ① 갈등이 높으면 지나치게 억압적으로 되든가, 아니면 지나치게 고양적(高揚的)으로 되는 경향이 있으며, ② 갈등이 높으면 불안 혹은 욕구불만이 생기며 그것으로부터 도피하려고 하거나 또는 공상적(空想的)으로 되기 쉬우며, ③ 갈등이 높으면 기억이나 선택을 함에 있어서 모순이 생기기 쉬우며, ④ 갈등에 의하여 생기는 동인(動因: drive)은 다른 행동에 대치되기 쉬우며, ⑤ 갈등이 높으면 행동이 충동적으로 되기 쉬우며, ⑥ 갈등이 높으면 유모어나 농담에 대해 과민(過敏)하고 또 회피하는 경향이 잘 일어나며, ⑦ 갈등이 높으면 행동의 결정이 둔하고 또 결정한 후에도 그 결정을 취소하는 경우가 많이 나타난다고 하였다.

2) 갈등에 대한 적응

인간은 이러한 갈등이나 욕구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적응을 시도한다. 즉 억압되고 저지된 욕구를 다른 방향으로 해소시켜 자신이 파국에 빠지는 것을 피하고자 한다. 다시 말하면 비합리적이고 비현실적인 적응을 피하여 욕구의 간접적인 만족을 얻어 자신을 보호하려는 행동을 하게 된다. 심리학자들은 갈등에 대한 적응 방법을 두 가지, 즉 직접적 적응과 방어적 적응(방어기제)로 분류하고 있다.²⁹⁾

직접적 적응(direct coping)이란 불편한 상황을 변화시키는 행동과 관련된 대처행동을 말한다. 예를 들면 우리의 욕구가 좌절되었을 때 우리는 우리 자신과 그 목표간에 놓여 있는 장애물을 제거하려고 시도하던가 혹은 우리의 목표를 포기하게 되는 경우와 우리가 위협을 받았을 때, 우리는 그 위협의 근원을 제거하기 위하여 공격하거나 아니면 그 위협에서 도피함으로써

28) R. B. Gattel & A. B. Sweney, Components Measureable of in Manifestations Mental Conflict. J. Abnorm. Soc. Psychol., 1964.: 이충원, 앞의 책, pp. 311~312.

29) 최정훈·이훈구·한종철·윤진·정찬섭·오경자, 인간행동의 이해(서울: 법문사, 1997), pp. 382~394.

위협적인 상황에서 벗어나게 되는 경우이다. 여기에는 세 가지의 대처 방법이 있다. 즉 첫째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을 변화시키려고 시도하는 방법이며, 둘째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는 방법이며, 셋째 주어진 상황에서부터 철회하는 방법 등이다.

방어적 적응(defensive coping)이란 위협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자기는 위협을 받지 않았다고 한다던가 혹은 자기가 갖고 싶은 물건이었지만 그 물건에 대해서 정말로 원하지 않았다는 것을 자기 스스로가 믿게끔 하는 여러 가지 적응 방법과 관련된 것들을 말한다. 이러한 적응은 주로 자기를 위협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며 누구인지를 분명히 말할 수 없는 모호한 상황과 자아 정체감이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내적 갈등의 상태에 빠졌을 때 일어난다. 여기에도 여러 가지 대처 방법이 있다. 즉 고통스럽거나 위협적인 상황을 부인해 버리거나, 자신의 만족되지 않는 욕구를 의식 표면에 나타나지 않도록 억누르거나, 자기 자신의 동기를 다른 사람에게 치환(置換)시키거나, 전위(轉位), 승화(昇華), 동일시(同一視) 하는 등의 방법이다.

이와 같이 인간은 누구나 할 것없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어기제(防禦機制: defence mechanism)를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방법은 때로는 긴장과 갈등을 해소하고 현재 자기가 갖고 있는 인격과 자아의 체제를 유지해 줄지 모른다. 그러나 방어를 위한 반응이 지나치거나 습관화되면 욕구불만이나 갈등 및 원(冤)의 요소가 그대로 잠재하여 여기서 다시 새로운 욕구불만이나 갈등, 그리고 원이 파생되고 누적되어 오히려 심각한 부적응을 일으키게 되어 이상행동을 유발시키게 된다. 다시 말하면 한 개인이 환경에 대한 능률적 적응에 실패해서 성격적 부적응이 나타나 개인 문제 해결에 오히려 커다란 차질을 빚을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3) 바람직한 적응

인간은 환경과의 적절하고도 조화적인 상호작용에 의해서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며 생활하고 있다. 사람이 생존을 한다는 것은 그 때마다 어떤 욕구를 가지게 되고 그 욕구가 충족될 때에 평형상태(平衡狀態)에 이르게 된다. 이와 같은 개인의 욕구로부터 시작하여 평형상태에 되돌아 오기까지를

적응의 과정이라고 한다. 즉 적응(adjustment)이란 인간이 자기의 욕구와 환경 사이에 조화를 이루어 그 욕구를 만족시키는 과정을 말한다. 만약 인간이 어떤 욕구를 전혀 갖고 있지 않거나 또는 모든 욕구가 자신이 바라는 대로 모두 충족된다고 하면 새로운 적응 방법은 필요 없을지 모른다. 그러나 인간의 동기나 욕구라는 것은 환경과의 접촉에서 언제나 충족되는 것은 아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그 본래의 목표를 성취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그럴 때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적응하기에 이른다. 또 적응을 하다 보면 어떤 습관이 형성되기도 한다. 즉 문제가 발생하면 어떤 사람은 서서히 침착하게 인내성을 갖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분주한 생활에 자신을 맡긴다. 또 어떤 사람은 문제를 회피하거나 중단하기도 한다.

그러면 어떠한 적응 방법이 바람직한 적응인가? 바람직하고 효과적인 적응에 대한 심리학자들의 견해를 종합해 보면 다음의 몇 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다.

첫째, 바람직한 적응이란 인간의 다양한 욕구와 꿈을 스스로 통제하면서 그들이 살고 있는 사회적 규범에 맞추어가는 삶이라는 것이다. 그것은 적응이 사회적 규범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개인의 능력을 기준으로 평가하기 때문이다.

둘째, 바람직한 적응이란 인간의 생활에 부딪치는 어려움이나 모호성을 동조(同調)에 의하여 회피하기보다는 오히려 즐기는 삶이라는 것이다. 그것은 인간이 자신의 욕구와 꿈을 지나치게 억제하고 통제를 하면 오히려 개인 자신에게 불안을 가중시키기 때문이다.

셋째, 바람직한 적응이란 인간이 동조(同調)와 비동조(非同調), 그리고 자기 통제(self-control)와 자발성(spontaneity)간의 균형을 잘 유지하여가는 삶이라는 것이다. 그것은 인간이 융통성을 가지고 있어서 자기의 능력이나 욕구는 물론 자기를 둘러싼 환경적 상황을 평가하는데 매우 현실적이기 때문이다.

넷째, 바람직한 적응이란 인간이 신비스러운 경험(mystical experience), 즉 종교적 가르침에 따라 충실히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이다. 신비스러운 경험은 사랑과 성(性), 심미적인 순간, 창조력의 분출, 통찰과 발견의 순간, 그리

고 자연과의 융합으로부터 얻어지는 경험들을 말한다. 이들은 높은 윤리 의식과 윤리적 내용을 기준으로 행동을 선택하게 하며, 또 무엇이 옳고 그른지, 좋고 나쁜지를 혼동하지 않게 하며, 올바른 행동을 지각하도록 하기 때문이다.

종교는 인간의 궁극적 관심의 표현이며 인간의 자기 자신과 우주에 대한 끝없는 물음이고 그 물음에 대한 해답의 모색이다. 그러나 인간이 종교를 통하여 궁극적으로 묻는 것은 무엇보다도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른 삶이며, 바람직한 적응이며, 그리고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다. 대순 사상도 『대순진리회요람』에서 적개심과 이기적인 소망으로 가득한 인간의 삶에 대한 바람직한 적응 방법을 말하고 있다. 즉 안심과 안신, 그리고 훈회(訓誨)를 실천하는 삶만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것이다.³⁰⁾ 또 그것의 실행 규범으로서 대순 사상은 「훈회」에서 ① 마음을 속이지 말라, ② 언덕을 잘 가지라, ③ 척을 짓지 말라, ④ 은혜를 저버리지 말라, ⑤ 남을 잘 되게 하라고 말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인간은 다양한 욕구에 대한 반작용으로서 생기는 갈등과 욕구 불만, 그리고 쌓인 원을 슬기롭게 해소시킬 수 있어야 되겠다. 그렇게 될 때만이 인간은 복잡하고 역동적인 개개의 인간 유기체를 중심으로 하여, 그 개인의 보다 고차적 적응능력을 기르게 될 것이며, 또한 개인의 부적응을 제거시켜 그로 하여금 바람직한 인간으로서 성장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30) 대순진리회교무부 편, 『대순진리회요람』(서울: 대순진리회출판부, 1969), p. 15

Ⅲ. 대순 사상에 나타난 해원상생

1. 해원의 양태

종교는 인간의 삶에 대한 지침이며, 바람직한 삶의 양태를 규정하는 인생의 나침반이다. 바람직한 종교가 무엇인지는 인간의 궁극적 관심을 얼마나 잘 표현했느냐 하는 것으로 결정할 수 있으며, 인간의 갈등과 욕구불만을 어떤 방식으로 해소시키느냐에 따라 종교의 효용을 논할 수 있다. 인간과 우주의 상관관계를 어떻게 규정짓고 있는지, 또 인간의 궁극적인 의문에 대한 대답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등으로 종교의 신성(神性)을 분별할 수도 있다. 인간이 종교를 통해 얻고자 하는 대답은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올바른 삶이며,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우주적 질서에 합당한 것인지, 나아가 유한한 삶의 종말은 어떻게 결말을 볼 것인지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대순 사상에서 말하는 해원(解冤)³¹⁾은 다양한 갈등과 욕구불만, 그리고 원을 지닌 인간의 삶에 대한 명쾌한 해결논리를 제시하고 있다. 이기적인 삶에 대한 순화와 적응 방법을 말하고 있으며, 척을 짓지 않고 해원을 통해 서로를 이롭게 하는 광의의 이타주의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안심과 안신, 그리고 훈회(訓誨)를 실천하는 삶을 통해 바람직한 인간상을 가꿔갈 수 있다는 것을 『대순진리회요람』에서는 말하고 있다. 대순 사상의 실행 규범은 한 마디로 남을 해코지 하지 말고 남을 잘 되게 하라는 말로 요약할 수 있다.

이러한 사상은 증산의 다음과 같은 말에서 더욱 극명하게 나타난다.

“우리의 일은 남을 잘 되게 하는 공부이니라. 남이 잘 되고 남은 것만 차지하여도 되나니 천명숙이 거사할 때에 상놈을 양반으로 만들고 천인(賤人)을 귀하게 만들어 주려는 마음을 두었으므로 죽어서 잘 되어 조선 명부가 되었느니라.”³²⁾

31) 해원의 의미와 원한의 발생 요인, 그리고 해원의 방법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楊茂木, “大巡思想과 韓國政治,” 『大巡思想論叢』-제1집(경기 포천: 대순사상학술원, 1996), pp. 216~219 참조

32) 대순진리회교무부 편, 앞의 책, “교법: 1-2.”, p. 221

이와 같이 인간이 올바른 삶의 방향을 찾기 위해서는 우선 자신의 욕구를 억제하고 척을 짓지 말아야 하며, 쌓인 원은 풀어야 한다. 그리고 남을 잘 되게 하기 위해 앞장 서는 봉사와 희생을 전제로 한 삶을 살아야 한다. 해원의 양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근본에 대해 증산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

“선천에서는 인간 사물이 모두 상극에 지배되어 세상이 원한이 쌓이고 맺혀 삼계를 채웠으니 천지가 상도(常道)를 잃어 갖가지의 재화가 일어나고 세상은 참혹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내가 천지의 도수를 정리하고 신명을 조화하여 만고의 원한을 풀고 상생(相生)의 도로 후천의 선경을 세워서 세계의 민생을 건지려 하노라. 무릇 크고 작은 일을 가리지 않고 신도로부터 원을 풀어야 하느니라.” 33)

해원의 양태 중에는 명부신명의 공사를 처결하는 것이 있다. 증산은 선천에서의 착란이 명부신명들의 포한(抱恨)에 따른 착란에 기인한 것으로 보고 그 원한을 풀지 않고는 후천의 상생 세계가 건설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증산이 이같은 천지공사에서 우주를 조화하게 된 것은 까닭이 있었다. 왜냐하면 하늘과 땅, 그리고 사람의 세 세계에서 하늘과 땅의 운도수(運度數)에 부정과 불응이 생겨서 우주 안에 있는 신명들의 세계와 사람들의 세계에서 제각기 공격해대는 상극(相克)이 벌어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서로가 원한을 품게 되어 진멸하는 위기에 놓이게 되었다. 그 원한이 쌓이고 쌓여 신명이나 약자는 그보다 강한 신명이나 강자에게 먹히게 되었으며, 하늘 세계에서 일어나는 천기가 고르지 않게 되어 비가 올 때에 제대로 비가 오지 않고, 햇빛이 나와 하는데도 햇빛이 제대로 비치지 않아서 재앙이 생기고, 재앙이 생기니, 질병이 따라서 일어나 모든 사물이 병들고 망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증산이 세상을 구하고 병에서 사람들을 구하는 덕을 베풀게 되었으니 이것이 천지공사이다.

천지공사 중 해원공사는 크게 신명계 해원, 인간계 해원, 지계(地界) 해원으로 대별할 수 있는데, 명부신명의 공사 처결은 만고의 원을 품고 명부에 있는 신명들의 원을 풀어주는 것에서 시작된다. 그 원이 단주에서 시작되었

33) 같은 책, “공사: 1-3.”, p. 98

다고 보고 그 단주의 원을 풀어주므로써 그로부터 수천년 쌓인 원의 마디와 고가 풀리는 것이다.

“예로부터 쌓인 원을 풀고 원에 인해서 생긴 모든 불상사를 없애고 영원한 평화를 이룩하는 공사를 행하시니라. 머리를 긁으면 몸이 움직이는 것과 같이 인류의 기록에 시작이고 원(冤)의 역사의 첫 장인 요(堯)의 아들 단주(丹朱)의 원을 풀면 그로부터 수천 년 쌓인 원의 마디와 고가 풀리리라. 단주가 불초하다 하여 요가 순(舜)에게 두 딸을 주고 천하를 전하니 단주는 원을 품고 마침내 순을 창오(蒼梧)에서 붕(崩)케 하고 두 왕비를 소상강(瀟湘江)에 빠져 죽게 하였도다. 이로부터 원의 뿌리가 세상에 박히고 세대의 추이에 따라 원의 종자가 퍼지고 퍼져서 이제는 천지에 가득 차서 인간이 파멸하게 되었으니라. 그러므로 인간을 파멸에서 건지려면 해원공사를 행하여야 되느니라.” 34)

증산은 원을 풀어주는 이같은 공사를 해원공사라고 일컫기도 한다. 그리고 그 해원의 대상자들은 억울하게 원한을 품은 채 이 세상을 떠난 사람들로 하여금 품은 원한을 풀도록 처음 품은 소원을 충족하는 공사를 보게 된다.

이를 두고 증산은 “명부의 착란에 따라 온 세상이 착란하였으니 명부공사가 종결되면 온 세상 일이 해결되느니라” 하고 말하고 날마다 종이에 글을 쓰고는 그것을 불살랐다.³⁵⁾ 이 공사에는 때로는 주육과 단술이 쓰였고 증산은 여러 종도들과 함께 그것을 먹기도 하였다.

해원의 또다른 양태로 증산은 때로 역신(逆神)들의 원을 풀어주는 공사를 처결하기도 하였다. 증산은 이러한 공사를 통해 척을 짓지 않는 것에는 어떤 한계도 없음을 몸소 보여준 셈이다. 역신이란 한 군주의 신하이면서 딴 마음을 품고 역적질을 한 자를 말한다. 이 경우에는 조선왕조에서 벼슬한 신하들이 조선왕조에 충성을 다하지 않고 일제에 붙어 간악한 짓을 한 것을 말한다. 증산은 이렇게 두 마음을 먹고 매국이란 난법 난도를 일으킨 역적들이 사람들로부터 ‘역적놈’들이라고 비난을 받는 자리에서 해원을 생각하고 실제 이런 공사를 시행하였다. 이런 역적들을 통해 일본은 임진란에서

34) 같은 책, “공사: 3-4.”, p. 130

35) 같은 책, “공사: 1-5.”, p. 99

맺힌 원한을 한일강제합방 조약으로 풀었다.

“조선을 서양으로 넘기면 인종의 차별로 확대가 심하여 살아날 수가 없고 청국으로 넘겨도 그 민족이 우둔하여 뒤 감당을 못할 것이다. 일본은 임진란 이후 도술 신명 사이에 척이 맺혀 있으니 그들에게 맡겨주어야 척이 풀릴지라. 그러므로 그들에게 일시 천하 통일지기(一時天下統一之氣)와 일월대명지기(日月大明之氣)를 붙여주어서 역사케 하고자 하나한 가지 못 줄 것이 있으니 곧 인(仁)이니라. 만일 인자까지 붙여주면 천하가 다 저희들에게 돌아갈 것이므로 인자를 너희들에게 붙여주노니 잘 지키지어다.”³⁶⁾

이처럼 해원의 여러 양태는 억울한 사람뿐만 아니라 욕설을 당하여 한을 품은 사람에게도 해당하는 것이다. 따라서 해원에는 진실로 사랑할 수 없는 자마저도 사랑하는 극진한 사랑이 담겨 있는 것이다.

2. 상생의 양태

해원의 다양한 양태를 극복하는 방법으로서 해원 상생의 여러 공사를 예로 들어보았다. 이같은 해원이 개인의 경우에는 어떻게 서로 관련되는 것일까? 『전경』의 기록에 의하면 백암리에서 종도 김경학이 김영학을 종도로 추천하였는데, 증산은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고 있다가 이레만에 경학을 꾸중하신 후에 종도의 허가를 내린 일이 있다. 이 때 꾸중의 원인은 “너를 꾸짖는 것은 네 몸에 있는 두 척신을 물리쳐 내려는 것이니라” 하는 증산의 말로 이해된다.

그 척 중 하나는 아전과의 말다툼에서 무례한 말에 분격해서 그에게 화로를 던져 머리에 상처를 입혔는데 그 상처로 신음하다가 죽게 된 것이고, 또 하나의 척은 의병대장으로 하여금 약탈한 의병을 찾아서 총살하게 한 것이다. 이 두 일을 예로 든 것을 보면 척이라 함은 상대에게 재앙이나 고로움을 끼치게 하는 행위를 말하며 이 척이 상대에게는 하나의 원한이 되는 것이다.

척은 저지르는 측에서는 모른다 할지라도 그 척의 대상이 되는 사람에게

36) 같은 책, “공사: 2-4.”, p. 115

는 원한의 근원이 된다. 따라서 척은 먼저 자신이 알고 그것을 참회하여야 상대방이 그로 인해서 품은 원한이 풀리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증산이 김영학에게 꾸증으로 그 지은 척을 먼저 깨닫게 한 것은 이같은 이유에서였다. 이렇게 척을 품은 측의 원을 먼저 풀어주고, 해원을 하게 함으로써 척을 지은 측과 원을 품은 측 사이에 이해가 이루어지고 정적인 관계가 회복된다.

해원이란 원이 된 원인을 없애고 소원하던 바를 충족시키는 일을 통해서 근원을 해소함을 말한다. 영원한 척의 윤희를 어느 순간에 끊고 분풀이 대신 참회란 의례를 통해 척을 없애는 것에 해원의 참 의미가 있다. 이를 통해 상극되었던 척의 장벽은 무너지고 상생(相生)의 화평 상태가 새롭게 열리는 것이다.

상생에 대해서는 『전경』의 기록에 여러 번 나와 그 의미를 체득케 하고 있다.³⁷⁾ 먼저 『전경』의 한 대목을 보면 <예시>편에서는 “선천의 도수를 뜯어고치고 후천의 무궁한 선경의 운로를 열어서 선천에서의 상극에 따른 모든 원한을 풀고 상생의 도로써 세계의 창생을 건지려는 상제의 뜻은 이미 세상에 흥포된 바이니라” 하고 말하고 있다. 이를 통해 후천 선경의 새 세상을 열겠다는 대순의 뜻을 명확히 밝히고 있는 셈이다.

“그러므로 상제께서 오셔서 천지도수를 정리하고 신명을 조화하여 만고에 쌓인 원한을 풀고 상생의 도를 세워 후천 선경을 열어놓으시고 신도를 풀어 조화하여 도수를 굳건히 정하여 흔들리지 않게 하신 후에 인사를 조화하니 만민이 상제를 하느님으로 추앙하는 바가 되었다.”³⁸⁾

앞에서도 말한 것처럼 증산은 삼계가 착란하는 까닭을 명부의 착란에 있다고 보고 명부에서의 상극도수를 뜯어고쳤다. 이를 통해 비겁에 쌓인 신명과 창생이 서로 상생하게 되었으니 대세가 돌려잡히게 된 것이다. 이처럼 상생원리에 의해서 인존 역사는 처결되었고 후천세계의 기틀이 마련되었다.

이상에서 본 상생의 양태는 여러 인간 관계에 고루 적용될 수 있는 것이다. 상생에는 사상 평등이라는 인류 구원의 사상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이다.

37) 상생의 의미와 상생의 양태, 그리고 상생의 방법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楊茂木, “大巡思想과 韓國政治,” 『大巡思想論叢』-제1집(경기 포천: 대진대학교 대순사상학술원, 1996), pp. 219~223 참조

38) 같은 책, “예시: 9.”, p. 313

『전경』에서 몇 구절을 인용해 본다.

“…… 이 뒤로는 예법을 다시 꾸며 여자의 말을 듣지 않고는 함부로 남자의 권리를 행하지 못하리라.”

“부인이 천하사(天下事)를 하려고 염주를 딱딱거리는 소리가 구천(九天)에 사모쳤으나, 장차 부인의 천지를 만들려 함이로다. 그러나 그렇게까지는 되지 못할 것이오. 남녀 동권시대가 되리라.”

“선천에는 청춘 소부가 수절하여 공방을 지켜 적막히 늙어버리는 것이 불가하니 후천에는 이 폐단을 없애리라. ……”

이같은 사상은 사람은 모두 근본적으로 동일하다는 평등사상을 일찍부터 주창한 것이 된다.

상생의 원리는 현대 문명 사상에도 적용된다. 즉 세계의 모든 인종과 족속들이 제각기 자기들의 생활 경험의 전승에 따라 특수한 사상을 토대로 하는 색다른 문화를 이룩하였으되, 그것을 발휘하게 되자, 마침내 큰 시비가 일어났으므로 후천세계에서는 각각의 문명이 척을 짓지 않도록 한 것이다.

즉 증산은 동양의 도통신(道通神)을 서양으로 옮겨 서양의 문명신들로 하여금 천국의 것을 본따게 하고, 그 문명신을 동양에 옮겨 와서 문명을 계발케 하였다. 이로써 하늘의 문명, 도통이 이 땅의 곳곳에 스며들어 후천 선경의 삶을 사람들이 누리게 되었다.³⁹⁾

동서양 문명의 상호 보완은 오늘날 서양 세계에서 정신 문명의 결핍을 극도로 우려하고, 동양에서는 현실 생활에 이용할 수 있는 기계문명의 결핍을 걱정하고 있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오늘날 동서 문화 교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은 이처럼 증산이 갈등과 대립의 상생이라는 상생의 원리를 통해 선천의 도수를 풀고 후천세계를 연에서 연유한다 하겠다.

“상제께서 모든 도통신과 문명신을 거느리고 각 민족들 사이에 나타난 여러 갈래 문화의 정수를 뽑아 통일하시고 물 썰 틈 없이 도수를 짜 놓으시니라.”⁴⁰⁾

39) 張秉吉, 大巡宗教思想(서울: 대순진리회출판부, 1989), p. 135

40) 같은 책, “예시: 12.”, p. 313

증산은 이 세상에 와서 도수로써 하늘도 뜯어고치고 땅도 뜯어고치어 물샐 틈 없이 도수를 짜 놓음으로써 제 한도에 돌아닿는 대로 새로운 기틀이 열리게 하였다. 만고의 원을 풀고 상생의 도로써 세상을 고친 것이며 이러한 말은 <교운>편에도 잘 나타나 있다.

“제생 의세(濟生醫世)는 성인의 도요, 재민 혁세(災民革世)는 응패의 술이라. 벌써 천하가 응패가 끼친 괴로움을 받은 지 오래되었도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상생(相生)의 도로써 화민 정세하리라.” 41)

결국 세상에 화평한 기운을 베풀고 백성들이 편하게 살도록 하는 방법으로서 상생의 원리는 작용한다 하겠다. 이처럼 상생의 도는 묵은 척을 풀고 새로운 세상을 여는 의술로서 병든 세상을 치유하는 절대 진리라 할 것이다.

3. 해원과 상생의 관계

해원과 상생은 대순진리를 나타내는 대명사격으로 대순진리의 교리 체계에서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해원상생은 원을 풀고 상생한다는 뜻으로 대순사상에서 중요한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해원이 필요한 것은 선천의 현실에서 필연적으로 연유하기 때문이다. 앞에서 이미 인용한 『전경』에서 증산은

“선천에서는 인간 사물이 모두 상극에 지배되어 세상이 원한이 쌓이고 맺혀 삼계를 채웠으니 천지가 상도(常道)를 잃어 갖가지의 재화가 일어나고 세상은 참혹하게 되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천지의 도수를 정리하고 신명을 조화하여 만고의 원한을 풀고 ……” ”

라는 내용을 통해 해원의 필연성을 밝히고 있는 것이다. 증산이 눈을 돌리기 전의 선천 세계는 참혹한 원한의 윤회로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세상의 모든 것이 상극에 지배되는 세계이기 때문에 원한은 또다른 원한을 낳고,

41) 같은 책, “교운: 1-16.”, p. 160

그 원한이 또 원한을 낳음으로써 인간과 사물은 모두 원한에 얽혀 있었다. 결국 상도(常道)는 무너지고 무도(無道)의 지경에 다다라 진멸지경이 되었다는 것이다.

이같은 극에 달한 세상을 구제하는 방법은 쌓인 원을 푸는 것이고, 그것은 증산이 말한 해원상생의 방법을 통해서만 가능하게 된다. 선천 세계에서 쌓인 원한은 인간 세계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증산의 <행록>편을 기록한 내용을 보면 이같은 사실이 잘 드러난다.

“상제께서 대원사에서 공부하시고 옷을 갈아입고 방에서 나오시니 대원사 골짜기에 각색의 새와 각종의 짐승이 갑자기 모여들어 반기면서 무엇을 애원하는 듯 하니라. 이것을 보시고 상제께서 가라사대 「너희 무리들도 후천 해원을 구하려 함인가」 하시니 금수들이 알아들은 듯이 머리를 숙이는도다. 상제께서 「알았으니 물러들 가있거라」고 타이르시니 수많은 금수들이 그 이르심을 좇는도다.” 42)

이처럼 해원상생의 적용범위는 선천 세계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 그래서 해원을 위한 방법 또한 수없이 많아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이다. 그 중의 한두 가지 예를 들어보자.

“상제께서 어느 날 종도들이 「중천신은 후사를 못둔 신명이니라. 그러므로 중천신은 의탁할 곳을 두지 못하여 황천신으로부터 물과 밥을 얻어먹고 왔기에 원한을 품고 있었느니라. 이제 그 신이 나에게 하소연하므로 이로부터는 중천신에게 복을 주어 원한을 없게 하려 하노라」는 말씀을 상제로부터 들었도다.” 43)

“상제께서 가라사대 「만고 역신을 해원하여 모두 성수(星宿)로 붙여 보내리라. 만물이 다 시비가 있되 오직 성수는 시비가 없음이라. 원래 역신은 포부를 이루지 못한 자이므로 원한이 천지에 가득하였거늘 세상 사람은 도리어 그 일을 밍게 보아 흉악의 머리를 삼아 육설로 역적놈이라 명칭을 붙였나니 모든 역신은 이것을 크게 싫어하므로 만물 중에 시비가 없는 성수로 보낼 수밖에 없나니라. 하늘도 노천(老天)과 명천(明天)의 시비가 있으며 땅도 후박의 시비가 있고 날도 수한의 시비가 있으며 바람도 순역의 시비가 있고 때도 한서의 시비가 있으나 오직 성수

42) 같은 책, “행록: 2-15.”, pp. 21~22

43) 같은 책, “공사: 1-29.”, p. 109

는 시비와 상극이 없나니라, 하셨도다.” 44)

시비와 상극이 없는 성수의 개념은 다른 종교에서는 볼 수 없는 독특한 진리를 내포하고 있다. 해원상생의 원리는 후천 선경의 세계를 건설하기 위한 방법으로 증산이 다양한 공사를 통해 이를 실천해왔다. 선천 세계를 광구할 수 있는 방법은 상극의 지배로 인해 천·지·인 삼계가 상통하지 못하는 윤회의 사슬을 끊고 근원적인 원인인 원한을 풀어내는 것이며, 증산은 해원을 통해 막혔던 것을 뚫고 상생을 통해 새로운 창조와 신세계를 열 수 있도록 하였다. 해원과 상생의 관계는 이처럼 더이상 원한의 쌓임이 있을 수 없는 후천 선경을 이룩하기 위한 큰 목적하에 한 방향으로 어우러지고 있다.

IV. 해원상생과 남북한의 정치 이데올로기

1. 분단 반세기의 남북한 이데올로기 비교

금세기 최대의 비극이라 할 민족 분단을 겪고 있는 우리 민족의 시련이 어떤 경위에서 비롯된 것인지 아직 확실한 결론을 내릴 수는 없다. 다만 전 시연합국의 종전 처리 과정에서 일어난 것만 확실할 뿐이다. 특히 소련군의 북한 주둔으로 인한 분단의 고착은 모든 정치가 그러하듯이 국제 정치도 권력 투쟁의 정치라는 것⁴⁵⁾을 입증하고 있다.

소련은 김일성을 앞세워 북한 지역에 위성국화 정책을 폈고, 미소 냉전을 이용해 이를 고착화시켰다. 문제는 미국과 소련이 나치 독일과 군국주의 일본을 타도하기 위해 일시 연합했음에도 사상과 체제에 있어서는 서로 전혀 다른 나라였다는 데 있었다. 이 때문에 애초에는 편의상의 구획선이었던 38선이 국토를 양분하는 선으로 굳혀지고 말았던 것이다.

김일성은 1945년 12월 17일에 열린 조선공산당 북조선분국 제3차 확대집

44) 같은 책, “교법: 3-6.”, p. 246

45) Hans J. Morgenthau, *Politics among Nations: The Struggle for Power and Peace*(New York: Algrid A. Knopf, 1961), p. 25

행위위원회에서 북한에 단독 정권을 수립하겠다는 결의를 공식으로 표시했다. 제1차 확대회의에서 책임비서의 자리를 김용범에게 양보했던 김일성이 실질적인 당 책임자로서 전면에서 나서면서 당의 노선과 조직에 관한 보고 연설을 행했는데,⁴⁶⁾ 이 연설을 통해 그는 북한에 공산기지를 뜻하는 「민주기지」를 창설할 것을 선언한 것이다. 이는 소련군 점령하의 유리한 조건을 최대한으로 이용하여, 제1단계로 북을 공산화하고 이를 근거지로 삼아 남한까지를 공산화하겠다는 속셈을 처음부터 드러낸 셈이다.

북한은 통일 독립국의 수립보다는 북한 지역만이라도 소비에트화하고 그를 바탕으로 적화통일을 이룰 전략을 세웠다. 남북한 이데올로기 대립의 시발점이자 민족의 분열, 그리고 국토 분할의 시초는 김일성 등 북한의 공산주의자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다.

한편 남한에 진주한 미군정당국은 현지 정세에 대한 아무런 사전 지식이 없었던 까닭에 여운형과 조선공산당이 중심이 된 좌익세력이 이른바 「민주주의 민족전선」을 결성하는 일련의 과정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였다. 김구와 이승만, 그리고 김규식 등이 중심이 되어 비상국민회의를 소집한 우익과 좌익의 대립은 나날이 격화되어갔고 사실상 내전에 가까운 양상조차 보였다.⁴⁷⁾

미군정은 좌우익의 대립 속에서 중간 세력을 중심으로 하는 남조선 과도입법위원을 발족(1946년 12월 12일)시키고 그것을 이듬해 6월 3일에는 남조선과도정부로 개칭하였다. 한편 북한에서는 1947년 2월 17일 최고입법기관으로 「북조선임시인민회의」를 세우고 2월 21일에는 ‘임시’란 말을 없앤 「북조선인민위원회」가 발족되어 김일성을 수반으로 하는 행정부가 북쪽에서 실질적으로 발족하였다.⁴⁸⁾ 김일성이 위원장인 이 기구는 사실상 북한의 단독 정부였으며, 이 기구의 발족으로 북한에는 공산 정권이 공식적으로 수립된 셈이었다.

북한은 정권 수립 후 위장평화 공세를 펴면서 실제로는 남침을 준비, 1950년 6월 25일 남침 도발을 감행하였다. 미처 준비가 되어있지 않던 한국

46) 조선중앙통신사 편, 조선중앙년감(평양: 조선중앙통신사, 1949), p. 57

47) 김학준, “한반도분단의 대내외적 요인”, 앞의 책, p. 14

48) 민병천, 민족통일론(서울: 고려원, 1985), pp. 61~62

은 무방비 상태로 낙동강 하류까지 후퇴하는 곤경에 빠졌다. 그러나 공산주의자들의 무력 팽창주의를 막으려는 UN군(참전국 16개국)의 즉각적인 참전⁴⁹⁾과 한국민의 필사적 반격으로 중공군 개입에도 불구하고 공산군은 곳곳에서 패전을 거듭하게 되었으며, 마침내 항복문서에 준하는 휴전협정(1953. 7. 27)에 조인하게 된 것이다.

개략적으로 기술한 분단 반세기의 역사를 보면 남북한 이데올로기에 대한 이해는 좀더 분명해진다. 오늘날 특정 이데올로기에 대한 총체적 이해와 객관적 평가가 결여된 데 따른 이념적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을 볼 때 남북한 이데올로기의 비교 평가는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고 본다. 증산은 6·25와 같은 한의 역사를 해원을 통해 풀어야 한다고 역설하셨다. 쌓이는 원의 사슬을 끊고 상생의 도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고 가르치신 것이다. 해원상생이라는 큰 진리의 거울을 통해 비춰볼 때 비로소 남북한 이데올로기의 화해와 통합의 길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원(冤)이 쌓인 세월이 어언 50년 가까이 되는 지금 시점에서 지난 세월을 돌이켜 보면 한국 사회는 엄청난 변화를 겪었다. 자유민주주의를 이념으로 하는 한국의 사회체제는 자율성, 다원성, 개인의 개발성을 존중하는 질서로 형성되고 있는데 비해서 마르크스·레닌주의를 북한 현실에 창조적으로 적용했다는 이른바 주체사상을 지도이념으로 하는 북한 사회는 김일성의 1인 지배체제 확립과 그의 권력 세습을 통한 김정일 체제의 승계로 체제적 특수성을 더욱 고착화시키고 있다. 비교적 성공적으로 보이는 권력세습 등으로 북한 사회는 그 어느 공산사회의 경우보다 전체주의적 요소가 더욱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이념에 따라 인간 존엄, 개성 존중에 가치를 두고 개인의 자율적 선택에 의한 각자의 삶과 행복 추구를 기초로 하여 민족 공동체의 지속적 번영을 위해 노력한다. 반면 북한은 사회주의·공산주의 사회건설을 지상목표로 설정하고 인간의 합목적성을 부인하며 이른바 평등을 표방한 자유박탈에 따른 주민 동원체제로 발전을 추구하여 왔다.⁵⁰⁾ 그러나

49) 미국의 6. 25. 참전 결정 과정은 Glenn D. Paige, *The Korean Decision*, June 24~30, 1950(New York: Free Press, 1968), Part III 참조.

50) 국토통일원 통일연수원 편, *민주통일론*(서울: 국토통일원, 1990), p. 332

사회주의 완전승리를 내세워 김일성 부자의 1인 독재체제를 정당화하면서 노동착취를 강요해온 북한 체제는 그 체제내 한계로 인해 오늘날과 같은 비극적 주민 기아사태를 자초하고 말았다. 민족사적으로 보면 북한사회는 전통성을 완전히 말살한 이질사회로 규정할 수 있다. 모든 역사적 사실을 프롤레타리아적 계급의식으로만 해석하는가 하면, 항일 독립운동사마저 김일성 일가의 날조된 이상적 신화로 변장시켰다.

북한은 주체사상이라는 사이비 이데올로기를 만들어 「사람이 모든 것의 주인이며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지극히 상식적인 내용을 주창하면서도 모든 것을 당과 수령에게 귀결시키고 마는 극심한 언어왜곡을 저질렀다.⁵¹⁾ 그리하여 인간 속에 잠재한 천부의 재능들을 살리기 보다는 개성적인 생각과 소신을 말살함으로써 모든 주민을 수령 한 사람의 교시로 최초는 이데올로기적 허위의식을 만연시켰다. 북한의 모든 조직은 우리와는 달리 당을 정점으로 정치적 목적 달성의 수단으로 형성된 것이기 때문에 참여 자체가 강제적일 뿐 아니라 맹종이 강요될 뿐이다.

남북한 이데올로기의 비교를 통해 어느 쪽이 우위에 섰는가는 역사가 이미 증명하고 있기 때문에 새삼스러운 논쟁거리가 되지 못한다. 동서냉전 시대를 거치면서 사회주의 국가들의 잇단 붕괴는 세계에서 사회주의 실험이 1백년을 채우지 못하고 실패했음을 의미한다. 이에 반해 자유민주주의는 인간의 개성과 창의성을 존중하는 인본주의 사상과 자유 시장 경제 체제를 수용하여 눈부신 과학 발전과 경제성장을 이룩해냈다. 이제 남북한 이데올로기의 비교우위 논쟁은 더이상 존재 가치가 없어지고 말았다.

51) 지난 해 북한의 인권 상황은 심각한 식량난 속에서 최악의 상태를 맞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국무부가 지난 1997년 12월 30일 발표한 연례 인권 보고서에서, “북한은 정치범 수용소 12곳에 15만~20만명을 수용하고 있다”면서, 아직도 공공연히 공개처형이 자행되고 있는 북한의 심각한 인권상황을 고발했기 때문이다. 세계일보, 1998년 2월 5일

2. 남북한 사회체제 비교

대외적으로는 철저한 폐쇄, 대내적으로는 생산에 있어서 인력의 강제적 동원 배치와 작업의 할당, 소비에 있어서는 철저한 배급제가 시행되고 있는 사회인 북한은 강제적·집중적 개발을 통하여 일정한 수준까지 경제 구조가 복잡화되었다.⁵²⁾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고수하고 있는 북한 사회 체제의 특징은 생산수단의 국공유화와 농업의 집단화를 바탕으로 한 중앙집권적 계획 경제의 실시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하는 한국은 근대적 민족 국가가 지향하는 평화사회, 복지사회, 자유사회의 체제를 지나 세계화를 기본 구도로 하는 완전 자유개방 체제를 갖추고 있다.

이같은 남북한 사회체제의 차이는 결국 북한 경제의 낙후성을 가져왔고, 북한 주민들이 기아선상에서 헤매이도록 만들고 말았다. 북한의 지도자들은 마르크스의 유물변증법을 신봉하면서도 그들 내부 체제에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모순에 대해서는 쉽게 인정하려 들지 않음으로써 북한 사회 발전을 그 만큼 정체시키고 있으며, 그 결과 북한 주민 전체가 막대한 희생을 감내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결국 개혁과 개방을 거부하는 북한의 체제 모순은 주민들을 도탄의 수렁으로 몰고 있다. 북한주민들에게 지난 1년간은 극심한 식량난으로 인해 허기와 절망으로 가득찬 고통의 시간이었다. 북한의 김정일은 지난 10월 8일 당총비서직에 추대됨으로써 권력을 승계, 김일성 사후 3년여간의 과도기를 종식시켰지만 주민들은 올해도 역시 극심한 식량난 속에서 「고난의 행군」을 지속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지도부는 식량난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주민들에게 더 큰 희생을 강요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북한은 「애국미」 우수 납부자들을 평양에 견학시키거나, 선전매체에 숨은 공로자로 선전하는 등 식량난 속에 주민들에게 「애국미」 헌납운동에 적극 동참토록 촉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 노동신문 최근호는 함남과 개성시 등의 애국미 우수 헌납자를 대표적 사례로 소개하며 이들을 「당과 수령을 위하여 누가 보건 말건 한평생을 바쳐 일한 숨은 공로자」라

52) 김광수, “북한사회주의 경제체제의 생성 발전과 전망”, 「북한」, 통권 220호(1990. 4), pp. 36~38

면서 「이들의 실천적 모범은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에게 감명을 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개성시 개풍군의 한 농민은 새 땅을 일궈 지난 20여 년간 27.5톤의 벼를 애국미로 바쳤다면 「장군님(김정일을 지칭)께서는 그의 애국충정을 높이 평가, 그를 숨은 공로자로 내세워 주시었다」고 이 신문은 대대적으로 선전했다.⁵³⁾

김일성의 3년상이 끝난 시점에서 더이상 승계를 미룰 명분이 없던 북한은 「김정일 시대」를 개막했지만 배고픔에 지친 주민들에게 새로운 청사진을 제시하지도 못한 채 권력을 승계했다. 게다가 당총비서 추대라는 것은 노동당 규약 24조에 명시된 선출절차를 무시한 비정상적인 편법이었다. 김정일은 당총비서직을 승계한 이후에도 군부에 의존하는 통치행태를 보였다. 김정일이 권력승계 이후 가진 11차례의 공식행사 가운데 무려 9차례가 군관련 행사였다. 뿐만 아니라 그는 군관련 행사 이외에는 외부인사 면담 등 공식적인 대외활동을 기피하고 있다.

김정일은 자신의 시대를 개막했지만 새로운 정책 제시없이 「유훈교시」 관철만을 강조해오고 있다. 노동신문은 지난 해 10월 28일 「우리에게 그 어떤 변화도 기대하지 말라」고 밝히는 등 김정일이 유훈통치, 은둔통치를 지속할 것임을 시사했다. 이같은 통치행태는 주민들에게나 대외적으로 내놓을 것이 하나도 없다는 참담한 북한의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김정일이 이처럼 뒤로 물러난 채 국정을 운영함에 따라 주요 당-정기관의 기능 정지 상태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올해도 북한 최고 정책결정기관인 최고인민회의나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가 열리지 않았다. 사실상 정상적인 국정기능이 정지된 파행적인 국가운영이라고 할 수 있다. 이같은 모순을 극복하기 위해 북한은 선전선동 전술을 강화하여 주민 결속을 다지고 있다. 이를 위해 북한은 각 초급당위원회에 대해 당정책과 노선을 주민들에게 해설하고 침투시키는 선동원들의 정치실무수준을 높이기 위한 사상교육을 강화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노동신문 최근호는 「초급당위원회에서는 선동원들의 활동정형을 수시로 알아보고 선동사업에서 부족한 점을 제때 고쳐나가도록 이끌어 주어야 한다」면서 「새로 선동원 대열에 들어선 동무들의 정치실무수준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53) 内外通信, 10987호 2편, 98년 1월 26일

북한은 이같은 내부 불안 요소를 1인독재체제 강화책으로 억누르면서 김정일 가계의 우상화물 건립에만 힘을 쓰는 등 부족한 정통성 강화에 주력했다. 올해 들어서만 김일성을 비롯한 우상화 상징물이 40여 개나 건립됐다. 또한 김일성의 우상화와 유훈통치를 유지하기 위해 3년상(1997년 7월 8일)을 계기로 봉건적인 「주체」 연호 및 「태양절」을 제정하고 김일성의 영생탑을 건립했다.

경제면에서 침체국면은 일부러 도외시되거나 언급조차 하지 못하게 주민들을 억압하였다. 북한은 지난 93년 12월 「인민경제 3차 7개년계획(87~93년)」 실패에 따른 3년간의 「완충기」를 설정했지만 이마저도 지난 해에 무기한 연기함으로써 경제회복의 기미는 눈을 씻고 찾아도 보이지 않는다. 옆친데 덮친 격으로 97년에는 이상고온 현상 및 가뭄, 해일 피해로 가뜩이나 부족한 식량사정이 악화돼 국제사회에 동냥을 바라는 처량한 신세가 됐다. 97년에는 연간 곡물수요량 6백50만 t의 절반수준인 3백69만 t을 생산했으며 외국 원조로 간신히 체제를 지탱했다. 그러나 식량배급체계는 이미 무너진 지 오래여서 체제를 등지는 탈북자들을 양산했다.

경제성장면에서 북한은 지난 해에도 마이너스 성장을 벗어나지 못했다. 이에 따라 북한은 지난 90년 이후 8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게 됐다.⁵⁴⁾ 이같은 어려움 속에서 북한은 식량-경제난을 타개하기 위해 나진-선봉 지구에 이어 원산과 남포를 내년에 개방하겠다고 밝혔다. 북한은 또 식량난으로 늘어나는 사회내부의 일탈행위를 막기 위해 남한과의 긴장을 조성, 체제단속을 꾀하기도 했다. 지난 4월 10일에는 북한군이 강원도 철원군 지역의 군사분계선을 넘었으며, 6월에는 서해상에서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한 북한함정이 우리측 고속정을 향해 함포사격을 가해왔다. 체제내 불만을 북한 외부로 돌리려는 노력은 「우리 식대로 살자」는 국수주의적 지도이념마저 낳고 있다.

54) 통일원은 최근 발표한 「동남아지역의 외환 위기가 북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분석자료에서 북한이 과감한 경제개혁-개방을 통해 불리한 지역 경제환경을 극복하지 않는 한 경제적 어려움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결국 동남아국가의 외환위기는 금년을 「비약의 해」로 설정한 북한의 무역에 심각한 타격을 주게돼 북한이 내세우고 있는 「무역제일주의」를 관철하기에는 적지않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하겠다.

“북한은 지난 1월 24일 전체 주민들에게 「우리식은 곧 주체의 식이며 이 보다 더 좋은 식은 없다」고 강조, 각 분야에서 아직은 개혁과 개방노선을 취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이날 북한은 평양방송 논평을 통해 「사람이 옷을 입어도 자기몸에 맞는 옷을 입어야 활동하기도 편리하고 남이 보기에 좋지, 자기옷을 버리고 남의 옷을 빌려 입으면 불편하고 어색하다」고 주장하며 「우리는 철저히 우리식대로 살아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북한의 이 방송은 「정치도 우리식대로 하고 경제와 문화도 우리식대로 발전시키며 국방력도 우리식대로 강화해야 한다」고 거듭 역설했다. 평양방송은 또 「우리 인민은 앞으로도 우리식 우리의 방법대로 경애하는 장군님을 따라 주체의 한길로 드팀없이 걸어 갈 것」이라고 다짐했다.”⁵⁵⁾

북한의 진일보한 행동이라면 지난 해 대미 관계개선에 주력했던 것을 들 수 있다. 북한은 지난 6월에 미군 유해 공동발굴을 합의했고 미-북 준고위급 회담을 개최했다. 또 4자회담에 참가함으로써 식량확보 및 대미관계개선을 위한 미국측과의 접촉선은 마련했지만 실제적으로는 남북관계가 우선해야 한다는 한국의 강력한 요구로 인해 실효를 거두지는 못했다.

3. 갈등의 해소를 위한 통일 기반 사상의 필요성

1972년 6월, 미공군이 투하한 네이팜탄에 맞아 알몸으로 울부짖으며 도망치던 9살난 베트남 소녀 김 폭의 비참한 모습을 우리는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그것은 적대와 대결의 냉전시대가 빚은 한 장면이었다. 지금은 34세가 된 그녀는 캐나다에서 신앙을 통해 새로운 삶을 살고 있다. 분노와 적개심으로 불타던 그녀는 신앙을 가지게 되면서 차츰 용서와 사랑의 마음을 품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다. 그녀의 고백중 가장 감동적인 대목은 자기 몸에 네이팜탄을 투하했던 그 때 군인을 32세 때 만나서 용서했다는 대목이었다. 유네스코는 최근 김 폭 여인을 평화의 대사로 임명했다. 적대와 대결의 삶이 화해와 평화의 삶으로 바뀐 것이다. 김 폭 여인의 개인적인 경험담은 남북관계에서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대순을 교시하신 증산은 일찌기 민족의 환란과 선천세계의 어지러운 상극

55) 内外通信, 10987호, 98년 1월 26일

의 이치를 갈파하고 해원상생의 원리를 일깨워주었다. 남북관계 역시 쌓인 원을 풀고 새로운 관계를 구축하는 데서 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전쟁을 경험한 사람들은 누구나 공산주의 북한을 싫어한다. 공산주의 북한이 싫어서 자유를 찾아 가족마저 잃은 채 남하한 사람들도 많다. 매년 추석이나 설날이 되면 이들은 통일전망대에 모여 두고온 가족에 대한 하염없는 그리움을 쏟아가곤 한다.

그러나 통일문제에 좀더 관심을 기울이다보면 남북의 대결보다는 민족화해가 남북 평화통일에 초석이 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민족의 화해를 위해서는 굶주리는 북한동포를 돕는 일도 중요하고 원수를 용서하는 대자대비와 정신자세도 필요하다. 숭고한 인도주의에 기초한 해원상생의 실천이야말로 민족화해의 기초를 놓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는 인본주의적이고 종교적인, 순화된 사상을 기초로 가능해진다. 남북 사이의 반백년 쌓인 갈등의 골을 메우고 새로운 화합의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갈등의 해소를 위한 통일 기반 사상의 필요성이 절실해진다. 그런 점에서 대순 사상의 조화·화합 사상을 남북 통일 촉진에 적용하는 것은 중요하다 하겠다. 「대순지침」은 “내 경위만 옳고 남의 주장을 무시하는데서 반발을 일으켜 서로 미워하다가 마침내 원한을 품어 척을 맺는 법이다”고 하며 그 척을 풀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해원은 척을 푸는 일이며 척을 맺는 것도 나요 푸는 것도 나라는 것을 깨닫고 내가 먼저 풀므로써 상대는 스스로 풀리게 되니, 양편의 척이 풀려 해원이 되고 해원이 되어야 상생이 된다는 것을 깊이 깨달아야 할 것이다.” 56)

인간의 본질을 규정하는 이기주의가 늘 득세한다고 볼 수는 없다. 우리의 불행한 역사가 물려준 민족의 분단과 아픈 역사를 가슴에 묻고 우리는 이제 민족의 통일과 세계화를 이룩해야 할 숙명적인 역사 전개를 눈앞에 두고 있다. 통일과 민족 화합의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지난 시대에 쌓인 적대와 대결의 사슬을 끊고, 화해와 협력의 정신을 선양해야

56) 대순진리회교무부 편, 「대순지침」(서울: 대순진리회출판부, 1984), p. 27

한다. 통일은 무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평화를 바탕으로 한 자유민주 통일이어야 한다. 다시는 6·25와 같은 민족 상잔의 비극이 되풀이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평화적 통일은 민주주의를 바탕으로 한 민주적 사상 체계를 갖춘 바탕 위에서 지난 시대의 깊어진 갈등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남북간의 대화와 화합을 추구할 때 가능해진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대순 사상의 현대적 적용은 남북한 통일은 물론 민족의 응비까지를 아우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4. 해원상생을 바탕으로 한 정치적 통일과 사상적 통일

정치적 통일은 해방 이후 좌우합작에서 보듯 제법 긴 역사를 갖고 있다. 김구는 좌우합작을 주장한 대표적인 정치인이다. 당시의 정치 상황과 연관지어 김구의 행동방식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최근의 한 연구는 미국이 한국에 영향력을 행사한 계통은 「미육군부-맥아더-하지-G2」와 「미국무부-문관 정치고문」으로 양분돼 있었고 전자가 주류이고 후자는 부수적이었다고 파악한다. 이를 바탕으로 「이승만이 단순히 미국쪽에 줄을 섰기 때문에 권력을 잡을 수 있었다는 기존의 주장은 비현실적」이며 「오히려 맥아더-하지로 연결되는 선상에서 이승만-한민당계열과 김구계열 그리고 김규식계열이 미국의 활용문제를 놓고 치열한 경합을 벌이면서 해방정국의 정치사를 만들어갔다」고 분석하는 것이다.⁵⁷⁾

당시 이승만은 미-소공동위 재개여부를 지켜보는 노련함을 갖고 있었으며, 미묘하게도 남한단정론을 먼저 표명한 사람은 이승만 대신 민주위원을 이끌고 있던 김규식이었다. 또 김구의 북행과 관련해서는 대립적인 두 가지 설, 즉 남한에서의 정치적 위상 실추에 따른 모험설과 순수한 민족주의가 있는데 실제로는 남한내 우익진영에서의 고립과 북한 및 남한 내 좌익으로부터의 제의, 그리고 포괄적 의미에서의 민족주의가 김구로 하여금 남한단독선거에 반대하고 중간파와 합작, 북행 등으로 이어지게 만들었다고 본다. 김구는 이미 40년대 말 좌우합작을 추진한 경력이 있다. 이런 경험이 그의 북행

57) 도진순, 한국민족주의와 남북관계(서울: 서울대출판부, 1987) 참조

에 어떤 형태로든 작용했을 것이라는 사실을 간과해선 안된다.

남북한 이데올로기 대립의 시대는 이미 낡은 시대의 유물인지 모른다. 이는 냉전체제의 산물일 뿐 세계는 이미 동서화합의 물결 속에 자국 이기주의의 큰 흐름만을 타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는 이념이 아니라 민족이 중시되는 시대이다. 최근 직선기선 문제를 두고 일본이 기존의 어업협정을 파기하는 초강수를 두는 것에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일본은 극우세력의 도전과 재무장의 뚜렷한 조짐을 보이고 있다. 중국은 군비증강에 몰두하고 미국은 IMF 체제를 통해 경제 지배를 강화하면서 일면 통상압력을 강화,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 하고 있다. 이제는 이념의 시대가 아닌 것이다.

현실적으로 한국 사람들은 통일에 대해 막연한 향수를 갖고 있다. 그러나 실질적인 북한 지원에 대해서는 실리적인 견해를 갖고 있기도 하다. 지난해 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실시한 한 조사에 의하면 대북 쌀 지원에 대한 한국민의 이분법적 사고가 여실히 드러난다. 우리 국민 10명중 7명은 대북 식량지원에 대해 「남북관계의 현실을 보가면서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일원이 지난 97년 말 이틀에 걸쳐 전국 20세 이상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남북적십자 합의결과 및 대북 식량지원」에 대한 설문조사를 보면 72.9%가 「남북관계 현실을 보가면서 지원해야」한다고 응답했으며, 「무조건 지원」은 15%에 불과했고 「지원할 필요가 없다」도 12.1%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는 것이다. 무조건 지원해야 한다고 응답한 사람들 중 70.8%가 그 이유에 대해 「북한이 동포이기 때문」이라고 응답한 것도 특이했다. 이 조사에 의하면 북한 식량난에 대해 10명 중 6명은 「과중한 군사비와 체제선전비 때문」(45.1%)이라고 보고 있으며, 그밖에 「사회주의 체제모순」(12%) 「홍수피해」(27.8%)의 순이었다. 식량난의 근본적 해결에 대해서 응답자의 41.3%가 「남북협력을 통한 농업생산성 제고」를 꼽았으며 다음으로 「군사비와 체제선전비 축소」(32.7%), 「식량지원 대폭확대」(15.6%), 「대외개방」(8.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대우그룹은 지난 해 남북 최초의 합작회사인 민족산업총회사가 잠수함침투, 황장엽망명 사건 등에도 불구하고 북한에서 10개월째 정상 가동중이라고 밝힌 일이 있다. 대우와 북한의 삼천리총회사가 합작, 지난 해 8월 가동에

들어간 민족산업총회사는 현재 남포공단의 셔츠-가방-재킷 등 3개 공장을 정상가동중이며, 이곳에서 생산한 물품을 독일을 비롯한 유럽과 일본에 수출하고 있다는 것. 이처럼 남북한이 합작 공장의 설립 등으로 이미 남북 화해의 물꼬를 텃다고 할 수 있는 상황에서 나온 이같은 조사는 우리 국민들의 갈등 양상을 잘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지난 해에는 또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가 지원하는 대북 경수로발전소의 착공식이 지난 8월 19일 함남 금호지구에서 한·미·일 정부관계자와 취재기자들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다. 남북한 최대의 공동사업인 경수로 공사는 새로운 형태의 협력관계라는 점에서 남북관계 개선에 희망을 갖게 했다.

김대중 대통령은 비록 IMF체제하의 경제난 속에서 새 대통령에 취임했지만 그에게 부과된 가장 무거운 짐은 역시 남북관계 정상화 또는 남북관계 개선이라는 데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없다. 문민정부 5년간 남북관계는 그나마 존재했던 실낱같은 관계마저 단절된 암흑상태였기 때문이다. 문민정부이기 때문에 기대를 걸었던 남북간 화해나 교류는 기대로 그치고 말았다. 최근의 각종 기자회견에서 나타난 김대중 대통령의 대북정책은 「단계적 평화통일 실현」으로 압축될 수 있다. 확고한 안보태세와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분명한 기조와 원칙하에 일관된 통일정책을 추진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확보하면서 북한을 순조로운 개혁과 개방으로 유도하겠다는 뜻이다.

선거운동과정에서도 김대중 대통령은 북한에 대해 세 가지 메시지를 분명히 전달했다. 우선 인위적인 방법으로 북한을 흡수통일할 의사가 없음을 밝힌 뒤 북한측에 교류와 협력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고 적극적인 대북지원 의사를 밝혔다. 또한 북한이 무력도발을 할 경우 이는 곧 북한의 과멸을 의미한다고 철저한 응징방침을 밝혔다. 따라서 그는 당장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획기적인 조치나 제의를 먼저 내놓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며 북한의 태도를 예의주시하면서 점진적인 관계개선을 도모할 것으로 전망되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과 북한이 모두 새로운 지도자를 중심으로 한 체제를 새롭게 굳힌 만큼 새 정부에서의 남북관계는 기존보다 개선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

망할 수 있다. 당선후 첫 기자회견에서 김대중 대통령은 북한의 최고실력자인 김정일과 정상회담을 가질 의사가 있음을 밝혔고, 지난 1991년 체결된 남북기본합의서를 토대로 정상회담을 실현키 위한 특사교환 재개를 제의하기도 했다. 또 4자회담의 성실한 추진과 대북 경수로사업의 차질없는 진행을 약속했다. 남북한이 중심이 되는 가운데 엄격한 남북한 상호사찰을 통해 한반도의 비핵화를 실현하고 북한 핵시설 해체 및 핵의혹 제거를 통해 한반도의 비핵화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앞으로 남북 교류는 이같은 정치적 기조에 따라 시간을 두고 개선돼 나갈 것으로 보이며 정경분리원칙에 따른 남북경협은 물론 다방면의 교류와 협력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IMF 관리체제라는 위기상황을 돌파하는데 북한시장과 남북경협이 큰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인도주의와 동포애적 차원에서 북한식량난 해결에도 호의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며 단 한 차례의 실험으로 끝나고 만 이산가족 상봉추진에도 새정부는 적극 나서야 하며, 이를 위해서 국민은 총화로 뒷받침해야 할 것이다.

정치적 통일과 사상적 통일을 이루기 위해 한국 외교의 기조는 한-미관계를 축으로 한 주변 열강과의 돈독한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한국의 안보, 한반도의 평화유지, 통일의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 외교란 국력을 바탕으로 늘 외교적 노력을 경주하는 것이 상례다. 한반도에 이해관계와 영향력을 갖고 있는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4강과는 꾸준한 선린외교를 추진하여야 한다.⁵⁸⁾ 이들 나라와의 관계는 평상시에 정부·재계·언론·민간기관을 통한

58) 지난 2월 10일 중국을 방문중인 김중필(金鍾泌) 자민련 명예총재는 베이징(北京) 중난하이(中南海)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김대중 차기대통령의 “동북아평화 6개국 선언” 구상을 밝혔다. 이 구상은 김영삼 정권이 그 동안 추진해온 4자회담의 기본틀을 상당히 수정하지 않으면 안될 것 같다. “4자회담”은 남북한과 미·중 등 한반도 정전협정 이해당사국이 모여 정전(停戰) 체제를 평화보장 체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것인데 반해 “동북아평화 6개국 선언”은 이들 ‘4자’에 일본·러시아까지 참여시켜 한반도 평화체제를 공고히 하자는 새로운 구상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한반도 평화구축 노력은 4자회담과 별도로 러·일을 포함한 6개국이 ‘신뢰 구축을 위한 다자간 대화’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그 동안 러·일도 한반도 문제 논의에 참석하기를 희망해 왔기 때문이다. 이러한 “6개국 선언” 구상은 6월에 있을 김대중 대통령의 미국 방문이나 가까운 장래 실현될 중국 방문에서 구체적인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중앙일보, 1998년 2월 11일.

다각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그 나라의 영향력을 미치는 단체·인사들과는 물밑의 다양한 채널을 통한 교류가 활성화 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국민의 호응을 얻으려는 노력도 중요하다. 국민의 지지와 협력을 받기 위해서는 작은 정부를 실현하고 정치계의 정화를 이루어야 한다. 재벌들의 무분별한 문어발식 기업확장을 막고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는 과감한 정책도 보여줘야 한다. 지난 1993년 8월 12일 대통령 긴급재정경제 명령으로 발표된 「금융실명제」도 즉시 철회되어야 한다. 이런 앞선 정치의 모습을 보여야 국민적인 총화가 뒷받침된다는 것을 새 정부는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김구는 분단극복이라는 커다란 신념에 대해 바위같이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다. 이승만박사도 격변하는 세계정세에 대한 뛰어난 통찰력의 소유자였다. 지금은 두 사람이 힘을 합치지 못했던 지난 역사를 반성하고 정치지도자들의 일치단결과 국민적 총화를 이루어내야 한다. 해원상생 사상을 바탕으로 우리 안에 내재해 있는 정치적 사상적 한계를 극복함으로써 민족주체성에 입각한 진정한 통일의 길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V. 해원상생에 의한 남북통일의 모색

앞에서 이미 살펴본 것처럼 본 논문은 한반도의 평화정착과 민족화합을 위해서는 진정한 통합과 통일을 위한 사상적 기반이 갖춰져야만 하며 이를 위해서는 해원상생에 의한 남북통일 방안 모색이 적절함을 논구해보았다.

독일의 경우를 보더라도 통일은 통일을 이루는 그 순간부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 단순히 금전적 가치로만 따질 수 없는 경제적 문제가 닥칠 수 있다. 이런 때에 사상적 대비책을 갖추는 것은 필요하다 할 것이다. 독일은 통일의 대업을 이룬지 7년째를 맞았다. 그러나 베를린 장벽 붕괴의 감동과 환호가 가라앉기도 전 독일은 갑작스러운 통일에 따른 엄청난 고통과 대가를 치러야 했다. 독일 베를린 중심가에서 택시를 타고 동쪽으로 30여 분 달리면 나타나는 동독 지역에서 농부들은 국도변에 나와 집에서 재배한 감자와 야채 등을 땅바닥에 놓고 팔고 있다. 이들은 주로 금요일과 주말 등

행락객이 많은 때에 좌판 행상을 하는데 아들이 실직하는 등 가계를 꾸릴 사람이 없어 공여지책으로 벌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구동독 지역의 최대 난제는 실업이다. 베를린의 공업중심지인 오버쇠네바이데공단같은 곳은 한때 근로자 수가 7만명에 달했으나 지금은 4천명으로 줄었다. 20여만평 크기의 이 공단에는 이제 중소기업을 포함, 열 개도 안되는 공장만이 가동되고 있다. 깨진 유리창과 굳게 닫힌 철문, 어둡침침한 색깔의 공장 건물이 폐허를 방불케 할 정도이다.

통일후 독일의 실업자는 전후 최대인 4백 47만여명으로 실업률은 11.7%. 그러나 동독지역은 실업률이 18.1%로 서독지역의 10.2%에 비하면 엄청나게 높다. 통일후 동독기업을 인수한 서독 회사들은 우선 불필요한 근로자를 대량 해고했기 때문이다. 독일정부는 통독후 동독지역 경제 재건에 연평균 1천 6백억마르크(80조원)를 쏟아부었으나 역부족이었다. 작년까지 투자한 금액은 국내총생산(GDP)의 5% 수준인 1조 1천 7백억마르크나 된다. 급속한 통일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나타난 경제기반의 붕괴가 가장 심각한 후유증이 되어 있고, 통일후유증의 모든 악순환은 바로 여기에서 시작된다.

독일 연방정부는 앞으로도 동독 재건을 위해 계속 돈을 쏟아부어야할 처지다. 초기에는 주로 공채를 발행했으나 지금은 유럽단일통화 가입조건 충족을 위해 함부로 기채를 할 수 없는 입장이다. 서독지역 주민들은 「밀빠진 독에 물붓기」 격인 대동독 지원정책에 더이상의 「고통 분담」을 외면하고 있기 때문에 통일이 오히려 독일의 발목을 잡는 상황이 연출되고 말았다.

따라서 인위적이거나 급격한 통일은 오히려 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그 이전에 정신적 통일을 먼저 이루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독일 통일의 교훈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남북한은 통일에 앞서 민족 동질성 회복을 통해 일체감을 조성해야 하며 서로 양보하여 각자 일정 부분의 희생을 치른 뒤에 점진적인 통일을 이루는 방법이 바람직하다. 이같은 일체감 형성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대순의 해원상생 사상이다.

세상의 모든 것이 상극에 지배되는 세계이기 때문에 원한은 또다른 원한을 낳기 마련이다. 그 원한은 인간과 사물에 두루 얽혀 있기 때문에 이를

끊어내지 않는 한 원한의 증첩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무도(無道)의 상태에서 상도(常道)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쌓인 원을 푸는 것으로 가능해지고, 그것이 바로 증산이 말한 해원상생이다.

증산은 원을 풀어주는 이같은 공사를 해원공사라고 일컫고 몸소 공사를 시행했다. 증산은 “명부의 착란에 따라 온 세상이 착란하였으니 명부공사가 종결되면 온 세상 일이 해결되느니라” 하고 말하고 날마다 종이에 글을 쓰고는 그것을 불살랐다. 이 공사는 처음 품은 소원을 충족하는 공사를 보는 것으로, 원한을 품은 채 이 세상을 떠난 사람들로 하여금 품은 원한을 풀도록 하는 것이다. 이 공사에는 때로는 주육과 단술이 쓰였고 증산은 여러 종도들과 함께 그것을 먹기도 하였다.

증산은 이미 공사를 끝내고 후천선경의 세계를 열었으므로 해원상생을 통한 통일의 길은 멀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땅에 화평한 통일의 기운이 일어나고 남북의 백성이 한데 어울려 편하게 살도록 하는 방법으로서 상생의 원리는 작용한다 하겠다. 해원상생은 묵은 한을 풀고 새로운 세상을 여는 의술로서 분단된 남북한을 하나로 묶는 묘약으로 작용할 것이다.

VI. 갈등 해소와 통합 사상으로서의 해원상생

1. 통일 이후 예견되는 갈등 양상

통일 정책에 대한 연구서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통일 이후 예견되는 갈등 양상에 대한 깊이 있는 천착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통일 이후 갈등에 대한 연구와 이에 대한 해결 방식에 대한 연구는 긴급하다 할 것이다.

오늘날 세계는 모든 부문에서 급변하고 있다. 동유럽의 공산주의·사회주의 나라들이 붕괴된 지도 이미 오래이고 동·서독이 통일을 이룬지도 벌써 7년이 지난 세월이 지났다. 이같은 급격한 소용돌이 속에서도 한반도에는 냉전의 산물인 분단의 비극이 가시지 않은 채 남북한의 긴장 및 대치상태는 계속되고 있다. 더욱이 한반도의 남과 북은 이념과 체제대결이 극심할 뿐만

아니라 민족의 숙원인 통일문제에 있어서도 커다란 입장차이를 보이고 있다.

한국은 기능주의적 단계론인 교류와 협력에 근거하여 평화공존을 통해 민족공동체로의 통일을 추구하는데 반해, 북한은 민족해방과 계급투쟁을 통해 한반도를 적화통일시키려 하고 있다. 북한은 노동당 규약 전문에서 「조선노동당의 당면 목적은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고,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과 인민민주주의 혁명과업을 완수하는데 있으며, 최종 목적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와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는데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북한의 통일노선이 「선(先)남조선 혁명, 후(後)공산화 통일」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바로 북한의 통일정책은 「남조선에 있어서의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혁명」으로 요약된다. 북한은 한반도의 공산화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3대 혁명역량 강화」라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삼고 있다. 이러한 통일의 전술적 방침은 64년 2월에 노동당의 방침으로 채택됐다. 그들은 이같은 통일노선에 따라 공산화 통일의 수단으로서 무력에 의한 남조선 해방과 남조선 혁명을 부추기고 도와서 연공합작하여 공산화하는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해 왔다. 북한은 전자를 비평화적 방법에 의한 통일이라고 규정하고, 후자를 평화적 방법에 의한 통일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양자 공히 전쟁과 폭력을 수반하는 반평화적·반문명적 노선이라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분단 50여 년이 지난 지금에 이르기까지 북한의 통일정책은 어떠한 변화를 가져왔으며 또한 그들이 추구하는 통일정책이 무엇인가를 살펴보자. 북한의 통일정책 변화과정에서 첫 번째로 들수 있는 것은 「민족해방론」에 의한 통일정책(1948~1953)이다. 이 단계에서 북한의 최고목표는 남한에 「혁명기지」를 건설하는 것이었고, 또 다른 북한의 전술은 남한내에서 무장폭동과 게릴라전을 일으키는 것이었다.

그러나 북한은 이같은 호전적인 전술과는 달리, 표면적으로는 평화적 통일을 내세웠다. 그들은 남한을 무력으로 정복하기 위해 군사적·경제적 발전의 가속화를 강조하면서 그들의 「조선혁명론적 통일정책」에 평화통일이라

는 외피를 입혀 민족과 온 세계를 기만했다. 북한은 남침전쟁 개시 전 날 남북한 총선거 실시를 제의하는 등 다양한 평화공세를 취했으며 이러한 일련의 상황들은 북한의 침략의도를 은폐하기 위한 조작극이었던 것이다. 이 같은 상호 모순되는 요소들은 오늘날까지도 북한의 통일정책에서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⁵⁹⁾

북한의 통일정책 변화과정에서 두 번째로 들수 있는 것은 「평화통일론」에 의한 통일정책(1954~1961)이다. 다시 말해 「선 건설·후 통일」의 평화통일론이다. 민족해방 전쟁론에 의한 무력통일이 실패하자 북한은 전후 복구와 정치적 안정에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고 전국토의 공산화를 위한 조건이 성숙될 때까지는 통일문제를 뒤로 미룬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60년 4·19혁명이 일어나자 북한은 「정당·사회단체 대표자 연석회의」의 공동성명을 통해 통일방안을 제의(60. 4. 26)하면서 「어떠한 외국 간섭도 없는」 남북 총선거의 실시를 강조했다.

이러한 북한의 평화통일 공세는 그해 8월 14일 김일성의 연방제 통일 제의에서 정점에 이르렀고 이 연방제안은 오늘날까지 그들의 통일방안이 되고 있다. 통일정책 변화과정에서 세 번째로 들 수 있는 것은 「3대혁명론」에 의한 통일정책(1962~1971)이다. 61년 한국에서 5·16군사혁명이 일어나 반공체제가 강화되자 북한은 그해 7월 6일과 11일, 소련 및 중국과 각각 상호방위조약을 맺고 평화통일 대신 「민족해방 전쟁론」을 내세워 제2의 남침전쟁 준비에 나섰던 것이다.

이는 62년 10월 23일 최고인민회의 제3기 1차회의에서 김일성이 「오로지 전 인민의 반미·민족해방 투쟁에 의해서만 조국통일의 대과업은 성취될 수 있다」고 공언한데서도 뒷받침되고 있다. 이 기간중 북한의 통일정책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한반도에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북한의 한반도 지배로 귀결되는 공산혁명은 평화적·공존적인 것이라고 하기보다는 본질적으로 무력적이며 병합적인 성격을 띠 수밖에 없었다.

59) 북한은 지난 해 1월 세계경제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다보스세계경제포럼(WEF)에서 투자문호를 개방한다고 공식적으로 밝히는가 하면, 지난 해 8월 15일 행한 한 연설에서 「미국이 더 이상 우리의 적이 아니라 우리의 친구」라고 하면서, 표면적으로는 개방과 평화를 내세우고 있다.

북한은 70년대 이후 통일문제에 대해 두 가지 상이한 접근방식을 채택했다. 하나는 남북한간의 대화를 통한 협상전략이었고, 다른 하나는 북한의 통일정책에 대한 국제적 지원을 획득하고 한국과 그 동맹국들에 대한 지원을 저지하기 위한 외교적 공세였다. 7·4공동성명의 발표로 4반세기만에 남북한간에는 대화의 물꼬가 트였으나 쌍방이 대화에 임하는 자세와 접근방식의 근본적인 차이로 진전을 가져오지는 못했다.

북한은 평화적인 대화와 협상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실질적 또는 정치적 이익이 아무 것도 없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자 전략적 초점을 외교적 공세의 방향으로 전환시켰다. 이러한 사실은 북한이 남한의 통일정책에 대한 기본 입장과 접근방식을 민족분단을 영구화하는 것이라고 비판한데서도 알수 있다.

통일정책 변화과정에서의 마지막으로 들 수 있는 것은 연방제 통일방안이다. 북한은 지난 60년대부터 연방제 통일을 주장해 왔으나 오늘날의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에 이르기까지는 몇 차례의 변천과정을 거쳤다. 그들이 처음으로 연방제를 내놓은 것은 60년 8월 14일 김일성의 연설에서 비롯된다. 북한의 이러한 연방제 제의는 4·19직후 한국의 정치적 사회적 혼란기를 이용하려는 위장평화공세의 일환이었다.

그후 북한은 71년 4월 12일 당시의 외상(외교부장)이었던 허담의 「8개항 제의」 속에 포함시켰고, 72년 11월 3일의 남북조절위원회 회의에서도 제기했다. 그리고 다음 해에 김일성이 고려연방제로 그 명칭을 바꾸었고 80년 10월 10일 노동당 6차대회에서 민주라는 말이 첨가되고 연방기구의 구성원칙 등을 구체화한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으로 제시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다시 말해 남북연방제가 고려연방제를 거쳐 고려민주연방제로 변천된 것이다. 북한은 70년대까지는 그것을 「통일에 이르는 과도적 조치로서의 연방제」라고 주장했는데 80년대 및 90년대 들어와서 이를 통일의 완결형태라고 선전하고 있다.

그 동안 북한은 김정일을 「조국 통일의 구성」, 「통일대통령」, 「21세기의 세계적 지도자」 등으로 미화 찬양하면서, 그들이 제시한 「조국통일 3대원칙」,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을 「3대 통일강

령」 또는 「조국통일 3대헌장」이라 주장하고 있다.

한편 통일에 대비한 교육 정책에 대한 기초 연구는 정부의 통일 대비 방안으로서 음미해볼 필요가 있다. 교육부의 의뢰를 받아 한국교육개발원이 마련한 「통일대비 교육부문 대책 종합연구」는 통일에 대비한 교육정책의 밑그림을 파악할 수 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는 것이다. 이 보고서는 정부의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 따라 남북관계를 △화해협력(99년까지) △남북연합(2000년) △통일국가(2010년)의 3단계로 상정, 교육부문의 대책을 분야별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급변상황에 의한 통일시의 남북한 교육통합방안」이라는 부제에서 보듯이 사실상 북한정권의 붕괴와 한국주도 통일에 대비한 것이다.

먼저 교육제도 통합의 기본방향은 △민족주의 민주주의 교육이념 △표준형 교육제도 통합 △점진적 통합을 원칙으로 설정했다. 학제는 「유치원—5—3—4—4년」 제로 개편, 유치원을 공교육화하고 초중고교는 12년의 범위에서 단계별 수업연한을 신축적으로 운영하며 국제 추세에 따라 9월 신학기제의 채택을 검토한다. 개인우상화 차원에서 이를 붙인 북한의 각급학교는 지역 또는 학교의 특수성에 맞게 고친다. 의무교육은 고급중학교 2학년까지 10년간(6~15세)으로 하되 통일 초기에는 8년간 초급중학교까지만 실시하고 북한의 의무교육 여건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둔다.

또 대학은 전문대 일반대 산업계대학으로 나눠 권역별로 소수의 종합대학과 특성화된 단과대학을 육성한다. 대학생선발은 자유경쟁을 원칙으로 하되 남북균형발전과 교류를 위해 지역별 쿼터제를 도입한다. 통일후 3년간은 중앙교육행정기능을 강화해 자율행정과 교육여건을 정비한 뒤 북한지역에도 교육자치제를 실시한다. 행정기관에는 남북한 인사를 균형있게 배치한다.

한편 교원제도를 보면 북한의 초중고교 교원은 통일헌법의 정신에 동의하는 것을 전제로 계속 근무시키고 대학에서 주체사상 공산주의이념 등 이데올로기를 가르치던 북한의 교수는 다른 분야 강의를 맡게 하거나 과목변경이 어려운 경우 해고한다. 교원으로 임용되려면 민족화합을 위해 올바른 인식을 갖고 통합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목을 지도할 수 있도록 「통일상황 적응 연수」와 「교과 지도능력 배양 연수」를 반드시 이수하도록 했다.

교육이념을 △민족공동체의식 함양 △민주주의 이해 △전인교육과 창의성 계발에 두고 「교육과정개발본부」를 신설한다. 장기간의 분단상태로 인하여 국어 역사 지리 등의 과목에서 이질화된 언어와 민족공통의 역사 문화를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교육, 민족동질성 회복에 역점을 둔다. 이를 통해 통일이후 교육계획은 한민족 동질성 회복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것이다.

정부의 통일정책 수립배경을 알 수 있는 통일을 대비한 교육제도를 살펴보고 통일환경의 변화요인과 북한의 통일 전략론, 그리고 남북관계의 부침을 살펴보았다. 결국 통일은 이질화한 민족공동체의 복원이 관건임이 확인해진다. 증산은 일찌기 척을 짓지 말라고 하였다. 남북 사이에 쌓인 척을 해소시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선결과제이다. 증산은 또한 해원상생을 얘기하며 갈등의 해소를 부르짖었다. 통일 이후 갈등 양상과 그 해결 방안에 대한 방법으로서 시사하는 바 크다 하겠다.

2. 해원상생 정치의 실현

올해는 남북관계에 새 전기를 이루는 한해가 될 것이 분명하다. 우선 올해 남북한은 모두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한국은 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의 첫해를 맞았고 북한 역시 심각한 경제난과 식량사정의 호전 기미가 없다. 그러나 정치적으로는 남북한이 거의 동시에 새 출발을 하는 해다. 한국에는 김대중 새 대통령의 신정부가 들어섰고, 북한에는 지난 해 10월 노동당 총비서로 취임한 김정일 정권이 모두 남북관계의 새 장(章)을 열 수 있는 국내 권력기반을 갖추고 있다.

무엇보다 근본적이고 시급한 것은 북한측의 대남(對南)인식 변화다. 북한이 새해 첫날 관영 중앙통신을 통해 당보와 군보 2개 신문 공동사설 형식으로 발표한 「신년사」는 여전히 대남투쟁 일색이다. 콘크리트장벽 제거, 국가보안법 철폐, 안기부 해체 등을 내세우며 「그런 실질적인 조치 없이는 남북관계 개선과 대화 그리고 통일은 공허한 메아리」라고 주장했다. 북한 대남 전략의 목표는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을 통한 전한반도의 공산화통일이다.

이러한 입장은 반세기가 넘도록 일관되게 추구하고 있는 전략적 기조이다. 북한은 최고 규범인 노동당 규약 전문에서 「조선로동당의 당면목적은 공화국북반부에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여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과 인민민주주의 혁명과업을 완수하는데 있으며, 최종 목적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와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는데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북한이 통일문제와 남북관계를 그들의 당면목표인 사회주의 혁명의 완성을 위한 단계로서 인식하는 혁명주의적 입장에서 접근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의 「남조선혁명」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인 대한민국을 타도하고 북한의 사회주의 체제로 흡수하기 위한 사회주의 혁명의 한 단계인 것이다. 한국의 대통령선거를 50여 일 앞둔 지난 해 10월 27일 북한 사회문화부 소속 직과 부부간첩 최정남(35)과 강연정(28)이 검거됐다.

특히 이 부부간첩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서울대 교영복 명예교수가 36년간 고정간첩 활동을 해왔으며, 심정웅 서울지하철공사 동작설비분소장은 이미 중학생때 월북, 간첩교육을 받고 39년간 철도·지하철에 근무해 왔다는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이번 간첩사건은 김일성이 사망하고 김정일이 당총비서에 오른 시점에서 「남조선혁명」에 대한 망상이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음을 입증하는 사례라 할 것이다.

북한은 「남조선혁명」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평화적 방도와 비평화적 방도라는 두 가지 방법을 병행하고 있다. 평화적 방도란 한국 사회의 분열을 통해 통일을 기도하려는 우회적 방법을 말하며, 비평화적 방도란 무력통일을 의미한다. 즉 통일전선 등을 통해 한국 사회를 교란하고 「연공정권」 수립을 기도하는 동시에 전쟁의 방법으로 한국을 적화시키기 위해 주한미군 철수투쟁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북한은 최근 대남공작활동을 크게 강화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남한혁명역량」 강화를 위한 통일전선 공작도 다양한 방법으로 전개되고 있다. 통일전선은 공산주의자들이 혁명과업 수행에 있어 기본으로 삼고 있는 전략 전술의 하나이다. 즉 공산당세력만 가지고 힘이 부칠 때는 「주적」에 반대하는 모든 세력과 일시적으로 동맹하여 그들의 힘을 활용해 타도시키고 그 후 공산당 세력을 지지하는 세력이외는 모두 제거한다는 것이다.

대남전략 수행에서 북한이 가장 공을 들이고 있는 조직은 바로 한총련이다. 베를린 소재 「범청학련」을 매개로 「통일대축전」이나 남북대학간 자매결연을 맺는 등 공동연대투쟁을 전개하는데 한총련을 대남 통일전선 단체로 적극 활용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평화통일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통일후 북한 주민 생활보호비로만 연 8조 9천억원이 든다는 조사연구가 나와있지만 어떻게든 이를 감당하는 것도 남북한이 해결해야할 정치 과제이다. 연구 결과는 지금 당장 통일이 이뤄진다면 북한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 보호에 매년 최소한 8조 9천억원이 필요하다고 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노용환(盧龍煥)책임연구원이 「통일후 북한지역 주민의 생활보호 정책과제」라는 정책보고서에서 밝힌 내용이다. 이 추정액은 지난 해 국내총생산(GDP)의 2.3%,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15.2%에 해당한다.

이 비용을 세금으로 충당한다면 남한주민은 당장 지난 해보다 11% 가량 세금을 더 내야 한다. 이 보고서는 통일 직후 북한 지역의 생활보호대상자를 취업·진학·배급 등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는 「적대계층」(전 주민의 28%)과 일부 「동요계층」을 포함, 전 주민의 30%(지난 해 말 7백15만7천명)로 가정했다. 생활 보호 수준으로는 현재 생보자에 대한 정부지원 수준인 1인당 월평균 13만 3천원 중 학비와 의료보호비를 제외한 10만 4천원을 균등 적용했다.

통일 비용은 실로 어마어마한 규모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북한은 심각한 식량난에도 아랑곳없이 전쟁준비에만 골몰하고 있으며, 대남혁명 전략에 매달리고 있다. 그러나 북한이 살길은 민생을 외면한 군사력 증강과 남북대결이 아니라 개혁·개방정책의 수용, 그리고 남북화해와 신뢰구축에 있음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북한이 한국의 대화제의를 거부하는 자세에는 변함이 없다. 북한은 아직 한국의 새 정부에 대한 입장정리를 못해 탐색단계라는 분석도 있다. 그러나 앞으로 분명한 것은 남북관계에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한국의 경제적 어려움을 최대한 이용하리라는 사실이다. 경제력 약화는 국제무대에서의 외교력 약화와 직결된다. 당장 3월에는 4자회담 제2차 본회담이 열릴 예정이다. 북

한은 전략적으로 한국의 대북(對北)지원 능력을 트집잡는 등 통미봉남(通美封南)정책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한국의 경제사정을 역이용하려 들 것이다. 그럴 경우 4자회담은 북·미 주도 구도로 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남북한 관계보다 우방이 앞서 나가면 한반도 문제 해결은 더욱 어려워진다. 올해 한국과 우방의 외교 공조는 그래서 더욱 필요하고 절실하다.

김대중 대통령은 이미 북측에 91년 12월 남북한이 채택한 기본합의서 이행을 촉구하며 남북한 직접 대화와 정상회담을 제의했다. 4자회담과 남북한 간의 경협문제에도 전진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남북한 관계에 있어서 특히 정치적으로 일관성을 잃지 말아야 한다. 김대중 대통령이 밝힌 대북정책은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진, 현실 접근이 가능한 정책들이다. 새 정부가 이를 어떻게 추진하느냐가 관건이다.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대외 발언권이 약화된다고 해도 대북관계에 있어서만은 중심을 지켜야 한다. 대북정책의 혼선은 북한정권만 이롭게 한다. 어떠한 국제적 회합이든 한반도문제의 직접 해결 당사자는 남북한이다. 그리고 남북한문제 해결의 기본틀로는 앞에서 언급한 남북기본합의서가 있다. 대북관계의 새로운 전기(轉機)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지금까지의 원칙과 틀을 철저히 고수하면서 유연하게 대처해 나가는 일이 중요하다.

앞에서 이미 밝힌 것처럼 증산은 일찌기 민중의 해원상생을 위한 천지공사에 주력했다. 선천세계의 막힌 도수를 풀고 이루고자 하는 소원을 이루도록 하려는 것이었다. 천지공사를 통해 역사의 흐름을 돌리고 적을 짓지 말 것을 강조했으며, 해원상생을 통한 인류 평화를 제창했던 것이다.

본 논문은 남북 분단에 따른 한민족끼리의 갈등 양상을 살펴보고 통일에 대비한 민족동질성 회복 문제를 점검해 보았다. 또한 한반도의 평화 정착과 민족화합을 위해서는 진정한 통합과 통일을 위한 사상적 기반이 갖춰져야만 하며 이같은 방안의 하나로 대순 사상의 하나인 해원상생 사상이 하나의 시안이 될 수 있음을 논구해보았다.

따라서 반세기가 넘게 겨레가 갈라서 있는 한반도에서 통일 이후 후유증을 크게 겪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해원상생 사상을 바탕으로 한 화해 정치의 실현은 쓸모없는 정쟁을 막고 정치력의 낭비를 최소화하는 방안으로서

한국의 정치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해원은 신명과 신명, 국가와 국가, 개인과 개인간의 맺힌 원한을 푼다는 점에서 이기주의를 버린 이상적 정치 현실을 구현할 수 있다. 일찌기 척을 짓지 말라고 강조한 증산의 해원상생 사상은 현대 정치 윤리로서도 훌륭하게 기능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해원상생 사상을 바탕으로 한 인도적인 접근이야말로 통일 이후까지를 대비한 바람직한 통일론이 될 수 있다. 이기적인 상극의 벽을 허물고 해원상생을 이루어야 하며 각자가 보은의 마음으로 새로 태어나야 할 때다. 이 타심을 발휘하여 과거에 맺힌 온갖 원과 한을 풀고 정의와 진실과 믿음을 바로 세울 때 해원상생의 큰 세계는 열릴 것이다.

VII. 결 론

본 논문에서는 한반도 통일을 위한 사상적 기반으로 해원상생 사상을 기반으로 한 남북한의 평화정착과 민족화합을 논구했다. 먼저 갈등의 양태를 살펴보고 분단의 고착이 가져온 남북한간의 갈등 양태도 살펴보았다. 갈등의 전개과정과 욕구 불만, 그리고 그 심화과정을 살펴보는 가운데 종교를 통한 해결 방법도 찾아보았다. 앞에서 논구한 것처럼 갈등은 여러 형태의 반응을 보인다. 인간의 욕구는 각양각색이라 누구나 갈등을 경험하지 않을 수 없고, 그 형태도 다양하기 때문이다. 어떤 것은 우리들에게 매력이 있어 우리가 그것에 접근하기를 바라며, 또 어떤 것은 우리를 위협하기 때문에 그것에서부터 회피하려고 한다.

한편 욕구불만은 일반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행동을 하거나 이상한 행동을 유발시키게 된다. 그러나 욕구불만에 대한 반작용으로서 나타나는 행동은 그 개체의 능력이나 욕구 수준에 따라 모두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욕구불만에 견디어 내는 능력을 욕구불만 인내성(忍耐性) 또는 내성이라고 한다.

욕구불만 내성은 욕구불만이 주어졌을 때 그것을 참고 견디며 그것을 해소하는 과정을 학습하고 획득하는 것이다. 욕구불만을 갖게 되면 심리적 긴

장은 높아진다. 긴장 해소 방법이 바람직한 것일 때에는 적응에 도움을 주고, 인격 형성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 따라서 욕구불만은 때에 따라서는 성격 형성 기능을 육성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욕구불만 내성(耐性)은 일반적으로 의지, 의욕, 저항력, 집착심, 관용성 등의 성격(personality) 특성에 의하여 표현되고 있으며, 욕구의 만족을 지연시키는 능력이라고 한다. 또한 욕구불만 내성과 현실 검증력(檢證力)은 자아의 중요한 구성개념이며, 현실 검증의 태도는 원래 사려적(思慮的)이고 지적 능력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 즉 모든 조건이 같은 경우에는 지적 능력이 높은 사람이 내성도 높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갈등과 욕구불만은 개인이 서로 충돌하는 두 가지 욕구나 기회 혹은 목표를 가졌을 때 일어난다. 따라서 인간은 누구나 이러한 갈등을 겪으면서 살아간다. 따라서 우리 인간은 일상생활을 살아감에 있어서 개인 자신이 소망하는 어떤 목표나 기회, 그리고 욕구 가운데 어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기로에 서는 일이 무수히 많다. 남북한 관계에서도 이같은 갈등 양상은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돌발적인 통일이 일어날 경우 이질화된 남북의 두 체제가 부딪치면서 갈등 양상을 보일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앞으로 수년 내에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4강과 남북한의 동시수교가 모두 실현될 전망을 하는 이들이 많다. 미국과 북한의 관계는 4자회담의 틀 안에서 단계적으로 진전되고 북한과 일본의 관계도 점차 조정될 것이기 때문에 한반도의 현행 휴전협정체제를 평화협정체제로 전환시키려는 새로운 움직임이 시작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 이전에 핵무기와 화학무기 등 대량살상무기가 확산되는 현 상황을 막고 아태지역에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고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통일에 대한 준비는 지금부터 서둘러야 할 것이지만 미리 준비된 사전 계획에 의해서 뿐만 아니라 북한에서 터질 예상 밖의 돌연한 사태 발생으로부터 통일이 시작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인간과 인간 사이에 일어나는 필연적인 갈등 양상을 논구하고 독일 통일의 예를 통해 이같은 통일 후유증 해소방안에 대해 논구한 것도 그 때문이다.

분단 반세기가 넘도록 이를 극복하는 노력을 제대로 하지 못한 우리의 책임은 크다. 지난 1991년 12월에 '남북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기본합의서'가 체결되기도 했지만 이는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말았다. 당시 대통령선거에서 당선한 김영삼 대통령은 이인모 노인의 방북을 조건없이 허가하는 용단을 내렸지만, 북한은 이를 본체만체 다음 날 핵확산금지 조약 탈퇴라는 충격적인 조치로 답했다. 이 때문에 남북 대화 창구는 싸늘하게 얼어붙고 말았다. 다행이라면 남북 어디에서도 「남북기본합의서」가 폐기되지는 않았다는 사실 정도 알 것이다. 김대중 대통령은 남북관계를 1년 안에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공약하고, 그 방법으로 「남북기본합의서」의 복원을 얘기했다. 북한이 다시 「남북기본합의서」의 틀 안으로 들어올 것인지 아직 단정할 수는 없지만 모든 여건이 유리하게 돌아가는 것만은 사실이다.

대순 사상으로 보면 남북 통일의 발전 변화 과정도 증산이 예언한 역사의 큰 흐름 속에서의 한 축으로 이해된다. 후천세계의 새로운 세상은 이미 정해진 도수에 의해 열려가고 있는 것이다. 남북한 정치의 과제를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통일기반 사상으로서의 해원상생은 남북한으로 흩어져 살아온 한민족의 화해와 통합을 위한 기본 사상이 될 것이다. 민족동질성 회복을 위한 정치인들의 노력과 국민 각자의 합의가 도출되어야 하며 이같은 해원상생의 사상을 바탕으로 한 국민 화합의 정치가 실현된다면 남북한 통일의 과제도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이다. 해원상생 사상은 남북 통일의 모색에 큰 축이 되리라 믿는다.

이와 같이 해원상생 사상을 우리 민족의 염원인 남북통일 문제에 국한시켜 미시적 시각에서 분석을 하였으나 증산이 「전경」을 통해 밝힌 바와 같이 해원상생은 한 개인이나 우리 민족에 국한된 것이 아니요 전 인류를 상대로 한 새로운 구원 사상이다. 또한 앞에서의 미시적 분석을 통해 후천개벽의 중요한 축을 이루는 인간 대 인간, 인간과 동식물, 인간과 지구 환경 등 인류 구원 사상으로서의 해원상생 사상은 거기서 더 나아가 우주 만물 등 생명있는 모든 것과 환경에 관련된 구원사상이기도 한 것임을 거시적으로 이해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모든 생명체가 자기 본위의 아집과 편견

에서 벗어나 우주 질서의 기본 원리인 해원상생의 길로 나아갈 때 상극의 질서에 의한 사회적 정치적 지상의 모든 난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을 것임을 밝히고 있는 것이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과학의 원리를 신(神)의 경지에 대치(代置)하는 어리석음도 범하고 있다. 자연과학의 원리를 전혀 무시해서도 안되지만 종교성을 과학성의 하위개념으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것은 그릇된 태도라고 보겠다. 그러한 과학적 단순 개념의 오류가 바로 가감(加減)의 원리에서 드러난다. 공평 공생(公平共生) 등의 개념을 확대 해석하여 더 가진 자의 것을 덜 가진 자가 공평히 나눠가는 것이 평화의 지름길인 듯이 여기기까지 하는 것이다. 이런 가설에서 출발했을 때 거기에는 가진 자와 못가진 자의 충돌, 대립, 갈등이 증폭된다. 따라서 새로운 척을 지게 되고 그것이 상극의 세계를 더욱 확대 재생산하는 결과를 빚는 것이다.

이미 서장에서 밝힌 바와 같이 해원상생 사상의 '상생(相生)'은 가감(加減)이 아닌 '승(乘)의 세계'를 지향한다. 상대방의 소유가 2이고 자신의 소유가 4라고 가정할 때 자신의 소유 중 1을 상대에게 사랑으로 베풀어 주고 나면 서로 3 대 3이 되어 비교적 공평한 상태에 이르는 셈이 되지만 그 합(合)은 여전히 6일 따름이다. 그러나 상생의 경우는 더하기(加)가 아니라 곱하기(乘)의 원리가 적용되기 때문에 그 합은 $2 \times 4 = 8$ 이라는 결론에 이른다. 상생에 의해 둘이 더 불어나고 창조되는 식의 '기적의 역사'가 쌓여 계속되는 것이 상생의 세계인 것이다. 2와 4의 기본수에서는 그 차이가 얼마 나지 않지만 2억, 4조 등 단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 차이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커진다.

해원상생에 대해 대순진리의 「전경」에서의 가르침을 다시 한 번 음미할 필요가 있겠다.

“선천에서는 인간 사물이 모두 상극에 지배되어 세상이 원한이 쌓이고 맺혀 삼계를 채웠으니 천지가 상도(常道)를 잃어 갖가지의 재화가 일어나고 세상은 참혹하게 되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천지의 도수를 정리하고 신명을 조화하여 만고의 원한을 풀고 상생(相生)의 도로 후천의 선경을 세워서 세계의 민생을 건지려 하노라. 무릇 크고 작은 일을 가리지 않고 신도로부터 원을 풀어야 하느니라.”

증산은 우주가 형성되어 성장하는 과정이 상극의 과정이어서 상극의 창조 원리가 작용했고, 이에 따라 원한과 갈등이 쌓여왔음을 적시하고, “선천에는 천지에서 상극의 진리로 인간과 만물을 길러내므로 인간의 모든 일이 도의에 어그러져서 원한이 맺히고 쌓여 왔다” 고 밝힌 뒤 “이제 상생의 도로써 천지를 개혁하여 새 세상을 펼리라” 고 강조했는데, 이같은 원리 역시 가슴에 다시 새겨야 할 내용이다. 후천개혁의 선경(仙境) 즉 지상천국을 이를 원리가 이 해원상생에 담겨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으므로 남북통일은 물론이고, 이 지상의 이데올로기 갈등 등 대립과 충돌의 역사도 해원상생이 이뤄질 때 저절로 해결되어지리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참고 문헌】

1. 저 서

가. 한 국

- 대순진리회 교무부(편), 전경(서울: 대순진리회 출판부, 1989)
대순진리회 교무부(편), 대순지침(서울: 대순진리회 출판부, 1984)
대순진리회 교무부(편), 대순진리회요람(서울: 대순진리회 출판부, 1969)
대순진리회 교무부(편), 포덕교화기본원리(서울: 대순진리회 교무부, 1975)
- 대순사상학술원(편), 대순사상논총: 제1집(경기 포천: 대순사상학술원, 1996)
대순사상학술원(편), 대순사상논총: 제2집(경기 포천: 대순사상학술원, 1997)
대순사상학술원(편), 대순사상논총: 제3집(경기 포천: 대순사상학술원, 1997)
대순진리회 교무부(편), 대순회보(서울: 대순진리회 출판부)
- 敎職科研究協議會(편), 心理學概論(서울: 창학사, 1986)
국토통일원통일연수원(편), 민주통일론(서울: 국토통일원, 1990)
金明勳 외, 心理學(서울: 박영사, 1974)
金訓基, 心理學概論(서울: 화서당, 1997)
도진순, 한국민족주의와 남북관계(서울: 서울대출판부, 1987)
민병천, 민족통일론(서울: 고려원, 1985)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편), 평화통일민족운동사: 제3집(서울: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사무처, 1988)
림영창·배용덕, 甌山神學概論(서울: 건강도서, 1982)
박영신 편저, 갈등의 사회학(서울: 까치, 1984)
백기완, 통일이냐 반통일이냐(서울: 형성사, 1987)
北韓研究所(편), 北韓政治論(서울: 북한연구소, 1979)
北韓研究所(편), 北韓의 統治이데올로기 批判(서울: 북한연구소, 1981)
송철복 외역/R. Kagan · Matthew Oh · D. Weissbrodt, 북한의 인권(서울: 고
려원, 1990)
愼鏞日·盧致淑, 敎育心理學(서울: 동문사, 1994)

- 申正鉉 · 白鍾天 편저, 國家安保論(서울: 일신사, 1981)
- 安耕田, 甌山道の 眞理(서울: 대원출판, 1996)
- 梁好民 · 李相禹 · 金學俊 공편, 民族統一論의 展開(서울: 형성사, 1982)
- 육군사관학교심리학처(편), 심리학(서울: 박영사, 1995)
- 이도형 · 양성철, 남북한 유엔시대의 새출발(서울: 자유평론사, 1992)
- 李南杓 외, 敎育心理學(서울: 형설출판사, 1975)
- 이명영, 권력의 역사: 조선노동당과 근대사(서울: 성균관대학교출판부, 1983)
- 李相斗, 마르크스 · 레닌주의의 諸問題(서울: 범우사, 1983)
- 李相斗, 南北韓의 이데올로기와 政治(서울: 거목, 1987)
- 李相禹 · 梁好民 · 李泰旭 · 劉載天 · 白鍾天 · 李慶淑 · 金學俊, 북한 40년(서울: 을유문화사, 1988)
- 李正立, 大巡哲學(김제: 대법사편집국, 1947)
- 李忠元, 敎育心理(서울: 학문사, 1991)
- 이흥구 외, 분단과 통일 그리고 민족주의(서울: 박영사, 1986)
- 李勳求 역, 現代心理學概論(서울: 정민사, 1988)
- 張秉吉, 大巡宗教思想(서울: 대순진리회출판부, 1989)
- 정용길, 분단국통일론(서울: 고려원, 1990)
- 趙淳昇, 韓國分斷史(서울: 형성사, 1983)
- 최상안 옮김/Marlies Menge, 동독의 통일 혁명(서울: 을유문화사, 1990)
- 최정훈 · 이훈구 · 한종철 · 윤진 · 정찬섭 · 오경자, 인간행동의 이해(서울: 법문사, 1997)
- 통계증 (편), 남북한 경제사회상 비교(1997. 12.)
- 韓昇助 외, 北韓의 現實(서울: 고대아시아문제연구소, 1980)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 北韓體制研究(서울: 고려원, 1987)
- 南師古, 格庵遺錄
- 世界大百科事典(서울: 학원출판공사, 1982)
- 세계대백과사전(서울: 동아출판사, 1996)

조선중앙년감(평양: 조선중앙통신사, 1949)

나. 서 양

A. H. Maslow, A Theory of Human Side of Enterprise, Harold J. Leavitt and Louis R. Pandy(ed.), Readings in Managerial Psychology(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64)

A. H. Maslow, Motivation and Personality(New York: Harper & Row, 1954)

D. A. Prescott, Emotion and Educative Process(1938)

Francis G. Hutchins, India' s Revolution: Gandhi and the Quit India Movement(Cambridge, Mass: Havard University Press, 1973)

Glenn D. Paige, The Korean Decision, June 24~30, 1950(New York: Free Press, 1968)

Hans J. Morgenthau, Politics among Nations: The Struggle for Power and Peace(New York: Alged A. Knopf, 1961)

James H. McBath, ed, British Public Addresses, 1828-1960
(Boston: Houghton-Mifflin Co., 1971)

K. Dunlap, Civilized Life(N. Y.: The Williams & Wilkins Co., 1935)

L. P. Thorpe, The Psychology of Mental Health(N. Y.: Ronald Press, 1950)

Rita L. Atkinson, Richard C. Atkinson, and Ernest R. Hilgard,
Introduction to Psychology(1979)

R. B. Gattel & A. B. Sweney, Components Measureable of in
Manifestcations Mental Conflict, J. Abnorm. Soc. Psychol.,
1964.

S. Freud, The Interpretation of Dreams(N. Y.: Hought Press, 1953)

2. 논 문

高南植, “典經에 나타난 陰陽合德의 原理,” 「대순사상논총: 제2집」(경기 포천: 대진대학교 대순사상학술원, 1997)

김광수, “북한사회주의 경제체제의 생성 발전과 전망,” 「북한」 통권

220호 (1990.4)

- 金永斗, “大巡思想과 그 世界史的 展開-解冤相生·天地工事を 中心으로-,” 「대순사상논총: 제1집」(경기 포천: 대진대학교 대순사상학술원, 1996)
- 金正泰, “大巡眞理의 宗旨에 관한 研究,” 「대순사상논총: 제1집」(경기 포천: 대진대학교 대순사상학술원, 1996)
- 金正泰, “大巡眞理의 宗旨에 관한 理解,” 「대순사상논총: 제2집」(경기 포천: 대진대학교 대순사상학술원, 1997)
- 김학준, “한반도 분단의 대내외적 요인,” 「국제정치논총」 제27집 1호 (서울: 한국국제정치학회, 1987)
- 림영창, “大巡思想의 神觀攷,” 「대순사상논총: 제1집」(경기 포천: 대진대학교 대순사상학술원, 1996)
- 림영창, “太極兩儀(陰·陽)와 그 合德에 관한 考察,” 「대순사상논총: 제2집」(경기 포천: 대진대학교 대순사상학술원, 1997)
- 림영창, “神人調化의 新世紀的 意義,” 「대순사상논총: 제3집」(경기 포천: 대진대학교 대순사상학술원, 1997)
- 朴昇植, “陰陽合德의 意義와 思想的 價値,” 「대순사상논총: 제2집」(경기 포천: 대진대학교 대순사상학술원, 1997)
- 朴龍哲, “典經에 나타난 冤의 本質과 構造,” 「대순사상논총: 제1집」(경기 포천: 대진대학교 대순사상학술원, 1996)
- 襄圭漢, “大巡思想과 人類의 未來,” 「대순사상논총: 제1집」(경기 포천: 대진대학교 대순사상학술원, 1996)
- 安鍾沄, “世界化時代와 相生倫理의 要請,” 「대순사상논총: 제1집」(경기 포천: 대진대학교 대순사상학술원, 1996)
- 安鍾沄, “理想的 人間性 形成 위한 陰陽合德論,” 「대순사상논총: 제2집」(경기 포천: 대진대학교 대순사상학술원, 1997)
- 楊茂木, “大巡思想과 韓國政治 -解冤相生 思想을 중심으로-,” 「대순사상논총: 제1집」(경기 포천: 대진대학교 대순사상학술원, 1996)
- 楊茂木, “救援眞理로서의 陰陽合德과 民主主義,” 「대순사상논총: 제2

- 집」(경기 포천: 대진대학교 대순사상학술원, 1997)
- 楊茂木, “天地公事와 民主主義,” 「대순사상논총: 제2집」(경기 포천: 대진대학교 대순사상학술원, 1997)
- 楊茂木, “救援思想으로서의 神人調化,” 「대순사상논총: 제3집」(경기 포천: 대진대학교 대순사상학술원, 1997)
- 尹起鳳, “陰陽合德의 宗教的 理解,” 「대순사상논총: 제2집」(경기 포천: 대진대학교 대순사상학술원, 1997)
- 尹起鳳, “神人調化의 宗教學的 理解,” 「대순사상논총: 제3집」(경기 포천: 대진대학교 대순사상학술원, 1997)
- 李京源, “大巡宗旨의 思想的 構造와 陰陽合德論,” 「대순사상논총: 제2집」(경기 포천: 대진대학교 대순사상학술원, 1997)
- 李根直, “解冤相生을 통해 본 甌山道思想의 照明과 具現,” 甌山道教授信徒會(편), 「甌山道思想研究: 제2집」(서울: 대원출판사, 1992)
- 李應奎, “甌山思想의 解冤相生과 恒産的 利他精神의 法理,” 甌山思想研究會(편), 「甌山思想研究: 제13집」(서울: 대원출판사, 1987)
- 李恒寧, “大巡思想의 宇宙史的 意義,” 「대순사상논총: 제1집」(경기 포천: 대진대학교 대순사상학술원, 1996)
- 李恒寧, “대순사상에 관한 소고,” 대순종교문화연구소(편), 「대순사상의 현대적 이해」(서울: 대순진리회출판부, 1988)
- 鄭大珍, “大巡思想研究를 위한 提言,” 「대순사상논총: 제1집」(경기 포천: 대진대학교 대순사상학술원, 1996)
- 鄭大珍, “陰陽合德의 理解,” 「대순사상논총: 제2집」(경기 포천: 대진대학교 대순사상학술원, 1997)
- 鄭大珍, “神人調化의 理解,” 「대순사상논총: 제3집」(경기 포천: 대진대학교 대순사상학술원, 1997)
- 曹泰龍, “神人調化를 통해 본 修道의 意味,” 「대순사상논총: 제3집」(경기 포천: 대진대학교 대순사상학술원, 1997)

3. 기 타

내외통신, 1998년 1월 26일

세계일보, 1998년 2월 5일

중앙일보, 1998년 2월 11일 ~ 12일

동아일보, 1988년 2월 11일 ~ 12일